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이즈음 그리스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1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0월 29일 (토) 제 160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2016 대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라!

로니 플로이드 목사, 크리스천들이 지켜봐야할 5가지 핵심 쟁점들 소개

막바지로 치달고 있는 '2016 대통령선거에서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로니 플로이드(Ronnie Floyd, http://www.ronniefloyd.com) 목사는 말한다. 그는 37년간 목회를 했고 남침례교(SBC)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의 경험,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 미국 최고의 전도자로 꼽힌다.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데, TV, 인터넷, 포드 캐스트, 라디오, 세미나, 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플로이드 목사는 대선을 세계관들의 경쟁이라고 본다. 이런 경쟁이 새로운 사태는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출마되는 이 기간에 후보자들의 관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계관 간의 심각한 충돌과 대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의 세속주의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속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후보자들의 관점을 보거나 들을 때 아주 구체적인 세부내용들도 면밀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권면한다(God, America, and Politics: 5 Major Issues Facing Genuine Evangelical Believers).

기도는 단일한 행위와는 다르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이다. 또한, 우리가 미국이 보장하는 정치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성경과 기독교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연애, 결혼, 가족, 일터, 여가생활, 교회, 정부 등과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원칙을 살아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향해야 하는 강하면서도 균형 잡힌 삶이다. 이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지도, 공격에 휩쓸리지도 않아야 한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이 고려할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5가지 쟁점들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존엄하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은 모태에서부터 무덤까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것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선 가장 크고 실질적인 문제로 인종 분별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분별하여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나라의 차기 리더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먼 훗날



미대선에서 크리스천들이 지켜봐야할 핵심쟁점들은 생명존중 등 5가지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고,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할 논점이다.

2. 결혼과 가정

성경적 결혼관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공격은 큰 문제가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문화의 흐름과 맞서더라도 참된 진리와 성경적인 결혼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 발언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보이는가? 그들은 가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가 속죄를 얻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의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길은 참된 기독교인으로부터 나온다. (3면으로 계속)

교회공동체,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 재다짐

리더십저널, 앨런 록스버그 목사의 변화의 5단계 과정 소개

과거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던 교회는 사회에서 현재 그 지위를 잃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절대적인 가치와 전통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교회는 자아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영적 푸드 코트로 전락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제대로 대처할 만한 힘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앨런 록스버그(Alan Roxburgh)는 "미셔널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독교'에서 탈피해,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우리 안에 다시 불러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앨런은 27년 이상 교회의 리더이자 신학교 교수로 섬겨왔으며 리더십 개발과 국내 선교학 분야를 가르쳐왔다. 캐나다에 위치한 앨버튼의 부회장과 앨버튼 미셔널 리더십 네트워크(AMLN)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미국과 유럽 및 오스트레일리아에 걸쳐 리더들과 지역 교회들과 훈련 학교들 가운데서 미셔널 운동을 조성하고 있는 여러 관계들과 자원들의 네트워크다.

안정상태 유지는 유기체 감각 무디게 해 적절한 반응능력 빼앗아 창조적 대응법과 새 제도에 대한 구상과 수용 인식시켜야 재형성 시기엔 전통 재창조하고 참신한 안정성 발견하도록

많은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맞이했던 과도기와 비슷한 단계에 놓여 있다. 우리가 서있는 자리는 커다란 도전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꺼이 경청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기회와 장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변혁시키고자 한다면 과도기에 해당 하는 우리 시대의 위협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기회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변화의 상황을 현실로 수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황은 누구든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지속하려는 노력과 그것이 하염없이 지속중이라고 믿는 인식은 별개의 것이다. 상황이 변했다는 인식을 빨리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에 들인 것만큼의 에너지와 노력을 들이면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다. (14면으로 계속)

교회가 처한 변화의 상황은 긍정적인 변화이든 부정적인 변화이든, 변화의 거대한 5단계 과정 안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인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안정(평형상태)

모든 시스템과 조직은 안정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작은 규모나 짧은 시간 속에서 안정은 바람직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적인 안정 상황은 오히려 위험하다. 주변 환경이 계속해서 동요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안정 상태는 유기체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며 적절한 반응능력을 빼앗아 간다. 리더는 이 시기에 잘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그러나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력화시킨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준비할 역량을 빼앗아가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1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새로운 이메일 주소 - NY: nychpress@gmail.com, LA: lachpress@gmail.com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아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5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인/터/뷰 이관형 사장

16면

헌츠빌 지역 말씀과 찬양 잔치

주제 :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정근 목사

강사 : 이정근 목사

(유니온 교회 원로, 미성대 명예 총장, 조각글 작가)

찬양 : 홍순관 집사

일시 :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 - 12 이정근 목사님 목회자 사모 세미나

금요일 오후 7시 이정근 목사님 말씀 집회

19일 토요일 오후 6시 이정근 목사님 말씀 집회

20일 일요일 오전 11시 이정근 목사님 말씀 예배

20일 일요일 오후 5시 홍순관 집사 동요와 시 노래 콘서트

장소 : 헌츠빌 침례 교회

2670 Johnson Rd, Huntsville, AL 35805

Tel 256 880 2390 WWW.HAPPYHBC.ORG

Cell 256 425 3135 (지준호 목사)

후원 : 헌츠빌 메디슨 지역 교회 협의회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재앙, “헌옷”

뉴스위크, 패스트 패션 헌옷 폐기물 재난적 수준으로 쌓여간다고 경고(1)

지난 4월 4일 미국 뉴욕시 H&M 매장 전시공간으로 들어선 방문객 눈앞에는 천장까지 쌓인 옷 한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옆 공간으로 들어가자 기자와 패션 블로거가 와인을 훌쩍이며 낯은 청바지와 재킷, 블라우스에서 오려낸 천조각을 이어 만든 마네킹의 옷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H&M의 친환경 캠페인 '컨셔스 컬렉션(Conscious Collection)' 론칭을 축하하는 칵테일파티다. 여배우 올리비아 와일드가 H&M의 지속가능한 패션을 대표하는 모델이자 대변인 자격으로 새로 출시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다. 전 세계에 4000개 매장을 두고 지난해 2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패스트패션 제국 H&M은 고객을 '의복 재활용' 캠페인에 참여시키려 노력한다. 고객이 헌 옷(브랜 드 상관없음)을 H&M 매장 안에 있는 수거함에 넣으면 상품권을 주는 캠페인이다. 'H&M은 옷을 재활용해 새로운 섬유 소재를 만들고, 고객은 H&M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받는다. 모두가 윈-윈하는 법!'이라고 H&M은 블로그에 적었다.

취지는 참 좋지만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 자선재단이나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한 옷 중 새 섬유로 재활용되는 옷은 0.1%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재활용주간에 M.I.A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며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H&M 캠페인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캠페인 일환으로 수거한 헌 옷은 자선재단 굿윌이나 다른 단체에 기부한 헌 옷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될 뿐이라고, 뉴스위크는 이미 헌 옷이 가져올 대재앙을 보도한다(FAST FASHION IS CREATING AN ENVIRONMENTAL CRISIS). 본 내용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옷장에서 낡은 옷을 모조리 꺼내 쓰레기봉투에 담았다고 치자. 돈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해 중고 할인 매장에 가져가거나 온라인 중고의 류물에 팔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산 귀한 옷이라도 작은 흡이



아직은 입을만한 헌옷이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채 쌓여간다고 있다.

지에 보내는 폐기물 1톤당 45달러를 지불한다. 뉴욕시에 경우, 매립지와 소각로로 섬유 폐기물을 배송하는데 연간 2,060만 달러를 지출한다. 뉴욕에서 헌 옷을 재활용하려는 이유도 비용 탓이 크다.

위생부가 지원하는 뉴욕 리-패션(Re-Fashion) 프로그램은 10가구 이상이 들어선 건물에 대형 의류 수거함을 둔다. 하우스 워킹 워크스(Housing Works, AIDS 환자 및 노숙자 지원을 위해 중 고 옷매장을 운영하는 뉴욕 기반 비영리재단)가 수거된 의류를 넘겨받고 뉴욕 리-패션에 톤당 가격을 지불하면, 이 돈은 더 많은 수거함을 비치하는데 지출된다. 2011년 도입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매립지에 들어갈 의복 폐기물 중 약 29만 300kg의 물량을 재활용했고, 하우스 워킹 워크스는 헌옷 매장을 여러 곳에 신규 개점했다.

그러나 이는 매년 뉴욕시에서 폐기하는 섬유 20만톤의 0.3%밖에 되지 않는다. 뉴욕시 건물 총 3만5000채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물은 690채에 불과하다.

규모가 작은 시에서는 대신

미국인 1인당 버리는 헌옷 매년 36kg, 1400만톤...재활용 0.1% 불과 2012년 버려진 옷 84%가 매립되거나 소각...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있거나 유행이 많이 지났으면 되짚어 맞는다. 패스트패션으로 유행이 빨리 변하고 시즌이 짧아지면서 옷은 1년만 지나도 '절지남' 옷이 돼 버린다.

중고매장 중에는 포에버21이나 H&M, 자라, 톱숍 등의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저렴한 이 옷들은 품질이 좋지 않고 재판매 가치도 낮은 데다 일당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인이라면 되짜를 받은 옷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미 환경보호청(EPA) 자료를 보면 2012년 미국에서 버려진 옷의 84%가 매립되거나 소각됐다.

면과 린넨, 실크 등 천섬유나 레이온 및 텐셀처럼 식물 셀룰로오스로 만든 반(半)합성섬유가 매립되면, 음식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처럼 분해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메탄이 발생한다. 그러나 바나나 껍질과 달리, 이들 낡은 옷은 아무리 천

연소재로 제작됐다 해도 비료로 쓸 수 없다. "천연섬유를 의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속가능한의류연합(Sustainable Apparel Coalition)의 제이슨 키버 CEO는 말했다.

"탈색과 염색, 프린팅, 화학 물질에 넣어 운내기 등의 과정을 거쳐간 소재다." 만약 이 의복들을 매립지에 넣은 후 온전히 분해되지 못하면 섬유에서 화학물질이 배어 나와 지하수로 스며들 수도 있다. 옷을 소각할 경우에는 이들 독성물질이 대기로 들어간다.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섬유도 환경에 동일한 피해를 끼친다.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생분해하려면 수백 년, 운 나쁠 경우 수천 년이 걸린다.

이렇게 끔찍한 통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 태연하게 어느 때보다 많은 옷을 버린다.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미국이 매년 버리는 의복의 양은 700만톤에서 1400만톤으로 2배 증가했다. 1인당 무려 약 36kg이 늘어난 셈이다. EPA는 독성이 높은 섬유 폐기물들을 전부 재활용할 경우, 도로에서 자동차 730만 대가 사라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를 폐기하면 엄청난 돈이 낭비된다. 각 신정부의 매립

길가에 수거함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홍보가 미흡해 버려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헌옷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선재단에 기부하는 것이다. 굿윌이나 구세군, 혹은 지역의 작은 매장으로 옷을 가져가서 세금 영수증을 받고, 뿌듯함을 느끼면 끝이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옷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사라지지만, 기부 이후 헌 옷은 지구를 둘러 긴 여행을 시작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제 2의 종교개혁의 첫걸음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한글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탁월한 인쇄술과 재본에 감동을 한다. 한국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고이지만 인쇄술 역시 최고가 아닐까. 성서공회와 통계를 보니 2014년 한 해에만 119개국에 235개 언어로 총 689만여 부를 세계 교회에 보급하였다. 1973년부터 2015년까지 42년간 총 1억5,100만여 부를 전 세계인들에게 공급하였다니 놀랍다. 종이질도 뛰어나다. 이전의 성경은 이쪽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에 줄을 치면 반대쪽에도 잉크가 묻어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거의 없다. 책의 어디를 펼 때에도 역지로 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성경마다 다르겠지만 글씨체도 역시 맘에 든다. 심지어 새로 구입한 성경에는 금공증을 달만한 안내 글과 사진, 지도까지 곁들여져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찬송가까지 다 합쳐야 웬만한 소설 두께밖에 안 되고 최고 품질의 가죽 겹데기이니 이런 호사가 따로 없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번역본도 나왔다. 요즘 성경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쉬운 성경"을 주저 없이 권한다. 어떤 분에게 그 성경을 권했더니 성경이 마치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힌다고 한다. 이렇게 대단한 인쇄술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성경책을 가지고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유는 간단하다. 펼쳐서 읽지 않으니!

어떤 책을 읽다가 오늘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는지를 보면서 성경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종교개혁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1494 - 1936)이 살았던 1500년대 초는 성경을 소수의 성직자만 가질 수 있었고 그것도 라틴어로 된 불가타어이 전부였다. 당연히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은 성경에 무지하였고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은 화형에 처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무지몽매가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지는 볼 보듯 흰하다. 그가 1522년에 성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 사본들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한 동료 성직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교황의 법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게 사람들에게 더 나을지도 모르오." 얼마나 교황의 악한 권력이 막대하였는지 상상이 간다. 그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나는 여러 해가 지나기 전에 당신보다 쟁기를 모는 소년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하겠소." 그는 1526년 독일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고국에 밀반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동료들에게 성경을 보급한 죄로 수배자가 되었다. 10년간의 수색과 음모 끝에 체포된 그는 로마제국의 법정에서 이단 죄로 선고받았다.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목이 잘린 그의 시신은 화형용 기둥에 묶여져서 다시 불태워졌으며 유골들을 흩어버렸다. 로마교회는 그렇게도 성경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 배경에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하기 3년 전에 이미 존 로스 목사가 중국에서 번역한 신약성경이 조선 민중들의 손에 들려 있었음을 역사학자들은 지적한다. 로스 목사는 30세에 중국에 도착해 이듬해 아내와 사별하는 슬픔을 겪었다. 그러면서도 조선 땅에서 있었던 6년 전에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에 도전받아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수고를 마다치 않았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1878년 봄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였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했던 제임스 게이 선교사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파나마 운하 하나를 파는 일처럼 힘들다고 토로했던 적이 있다. 하긴 루터 역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며 성경번역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호소했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은 이런 선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의 결정체다.

이번 주일은 499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이다. 개혁가들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무한대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막상 성경을 읽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스크린에 성경을 띄워주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교회당에 갈 필요조차 없다.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차지하고 앉아 비성경적으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한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 세상을 살라고 하였지만 성경에 무식하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난망하다! 로스 목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한 매켄타이어 선교사는 "그 어떤 것도 한글성경 사업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의 모든 영혼은 그 안에 있다"고 할 정도로 성경 번역 사업에 열정을 다 바쳤다. 이렇게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성경에 있다. 성경을 펼쳐서 다시 읽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아직 한국교회는 늦지 않았다! 제 2의 종교개혁은 교인들이 성경을 다시 펼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danielkmin@yahoo.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2016 대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라.’

(1면에서 계속)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 후보자가 과연 당신의 가족을 진심으로 고려한 정책결정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가슴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가족제도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3. 종교적 자유

기독교인을 겨냥한 위협적이고 처참한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고 있다. 미국의 차기 최고사령관은 이런 참사들을 안일하게 지켜보며 시간이 흐르길 기다릴 것 같은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당당히 일어서서 맞설 것인가?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둔 국가로 세워졌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극심한 위협을 견뎌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역사가 자랑하는 근원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고의 챔피언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세계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

4. 탁월한 행정가

기독교인이란 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의 능력과 탁월성을 검증해야 한다. 신앙적인 입장과 성경 암송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도 대통령이 될 사람은 나라의 역사와 헌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탁월하게 행정을 돌보고 사람들을 이끌 줄 아는 리더여야 한다. 또한 주변에 다른 훌륭한 리더들을 참여 시켜서 미국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는데 협조를 받아서 미국의 역사와 헌법이 표방하는 가치를 모든 분야에서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5. 임명, 임명, 임명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리더십을 임명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다양한 직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과 힘의 크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리고 때로 어떤 직

책들은 짧게 몇 년이 아닌 평생토록 유지되기도 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갖는 대표적인 인사권한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연방 대법원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죽기 전까지 그 직책을 갖게 된다. 차기 대통령은 최대 4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임명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은 보수적 법해석으로 유명하다. 그는 1986년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이것만 봐도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도덕과 사회문제에 보수주의의 정통을 이어간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광장히 위대한 리더였고 생명권에 대해 모태부터 죽음의 문제, 남녀 간의 결혼, 종교의 자유, 헌법수정 제2조(간기소지의 자유)와 같이 미국 헌법의 가치를 투철하게 지켜냈다. 이제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으로 자연스레 이번 대선에서 주요 관심사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통령 후보들을 검토해야 한다.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어떤 사람을 미국의 연방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인가?

한 아이টে를 찾는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우징 엑스의 기업사업부 선임부사장 데이비드 레이퍼는 말했다. 구월의 전략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메이어 부사장은 말했다. "새 상품을 더 빨리 찾아내야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낼 수 있다."

매주 신상품을 광고하는 스페인 패스트 패션 자라의 전략과 비슷하다. 시즌별 1-2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신상품

찾기 힘들다"고 조지타운대학 경제학 교수 피에트라 리볼리는 말했다. 노숙자와 저소득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싱턴DC 비영리재단 N스트리트빌리지는 위시리스트에서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브레이크어너 우버처럼 구하기 힘들거나 유용한 아이টে를 제외한 다른 헌 옷



은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었을 정도다. 패스트패션 때문에 자선재단은 더 많은 의복을 더 빨리 처리해야 그나마 이전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낮춘 패스트패션 산업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좋은 아이টে를 골라내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의 옷을 헤집고 찾아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판매 가능

을 선보이는 이 전략은 패션산업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뉴욕 지역에서 의복을 기부하면, 중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대신 트랜스-아메리카 무역법인으로 향하게 된다. 뉴저지 클리프턴에 위치한 무역업체의 거대 창고에서는 매일 약 3만6280kg의 의복을 받고 처리한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대회활동 이야기 (3)

총회장 재임시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회장을 겸임했다. 군사정부가 이어지는 동안 민주화와 사회참여가 KNCC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형극의 길을 걸어야 했다.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라는 신학적 양념이 첨예화 할 때 사회구원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전통 신학과 맞서기도 했다.

문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KNCC가 전후적 연합체로 각인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항, 반대, 투쟁, 신학적으로는 좌향좌, 거기다 가맹교단의 제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잔뜩 짊어지고 있다.

KNCC는 역사와 전통에 비해 한국교회를 설득하는 파워가 약하다. 이유는 조직과 구성이 편향적이기 때문이고, 한국교회를 신학적으로 설득하기 힘든 노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울했던 시대를 벗어나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 터라 구시대적 저항이나 투쟁이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KNCC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명실공히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치를 이루기 위해 시작한 것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다.

한기총을 태동시킨 지도자들이 부름으로 필자는 한기총이 출범할 때부터 심부름꾼으로 참여했고 대표회장으로 섬기기도 했다. 한기총은 KNCC에 비해 보수성향의 교단들이 대거 참여하고 기관이나 단체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명실공히 한국교회 연합기구로 사명을 다해왔고, 사회 각계각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발전해 나왔다. 하지만 작금의 한기총을 에워싼 불허화음이나 분열은 한국교회 위상을 깎아내렸고 선교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을 어둡게 했고, 반기독교 세력과 집단들에게 교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실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지 어떤 역학이 작용을 했는지 건 건 지나간 일이다. 이대로 갈 것인가? 그래도 괜찮은가? 대의를 위해 소의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한다면 재기와 회복의 길이 열리겠지만 이대로 분열의 노선을 고집한다면 훗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불행한 책임자로 낙인될 것이다.

한기총 회장 취임식을 마친 날 오후 첫

번째 행사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예방했다. 낯선 나라에 청춘을 바친 선교사들의 숭고한 선교정신을 기리고 전승해야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이어서 동작동 국립묘지와 부산에 있는 UN군 묘지를 예방했다. 동작동에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들이 그리고 UN군 묘지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UN군들이 잠들어 있기에 예방의 의미가 있었다. 예방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호병원과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실행했다.

한기총을 책임지면서 필자의 생각은 한기총이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다 만나준다. 그러나 만나러 가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 겨루는 대통령만 제외하고는 모두 한기총을 찾아왔다. 경찰청장, 기사사 사령관, 장차관, 각 당 대표, 국회 대표, 사법부 대표 등 찾은 발걸음이 많아졌고 그와 함께 한기총의 위상이 높아졌다.

권력과 교회의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 지도자가 권력과 결탁한다든지 그 주변을 맴돈다든지 추파를 던지고 자리를 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는 국가를 이끄는 견인세력이어야지 앞잡이로만만 해 보이는 집단으로 추락하면 안 된다. 목사의 대외활동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양 때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가 퇴행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금도 필자는 총회, KNCC, 한기총 출입을 피하고 있다. 그만큼 한기총이 아니기 때문이고 출입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저곳을 드나드는 사람들, 자기 아니면 자동차의 핸들이 꺾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사건건 끼어들고 매사를 간섭하려 드는 사람들, 만일 그들이 목회자라면 "빨리 목회현장으로 돌아가라,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권한다.

정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꾼은 안 된다. 일꾼은 필요하다. 그러나 트러블 메이커는 필요 없다.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기독교인다운 크리스천의 구현이 주님의 요구이고 한국교회의 바람이다. 그렇게 되는 날 이자리진 한국교회 얼굴은 화사한 봄날 피어나는 꽃처럼 자태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날이 곧 오리라 믿고 기대한다.

iamcspark@hanmail.net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재앙, "헌옷"

(2면에서 계속)

섬유재활용위원회 자료를 보면, 자선기관에 기증된 옷 중 소매매장에서 판매되는 건 20%밖에 되지 않는다. 뉴스위크가 연락한 대규모 자선재단 모두 그보다 판매율이 높다고 답했다. 구월은 30%, 구세군은 45-75%, 하우징 엑스는 40%다. 평균과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소규모 자선매장과 달리, 이들 대규모 조직은 의류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잘 갖췄기 때문이다. 주요 소매 매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옷은 아울렛 매장으로 향한다. 아울렛 매장의 옷 가격이 그렇게 싸도 안 팔리는 옷이 있다.

"매장이나 온라인, 아울렛에서도 판매되지 않으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구월 인터스트리 인터내셔널의 기부품 판매 및 마케팅 부사장 마이클 메이어는 말했다. 구월을 비롯한 이들 기관은 남은 옷을 한데 묶어 단단하게 수축 포장한 후 의류 재활용업체에 판매한다.

자선재단에 기부한 옷이 모두 불우이웃에 돌아간다고 믿었다면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올해 초 한 패션지에는 '우리가 기부한 옷은 어디로 가는가'란 기사가 게재됐다. 기사 내용을 보면 '기부한 옷이 100% 좋은 일에 쓰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옷 생산과 같은 속도로 헌옷을 소비해줄 사람들

윤세웅 박사의

제 3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

주제: 의학적으로 본 진화론의 오류

왜 진화론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가? 신학자, 과학자, 목회자, 평신도가 꼭 알아야 할 사상 최초의 의학적(유전학적) 세미나

강사 : 윤세웅 박사

Rev. Dr. Richard S. Yoon, M.D, Th.D, D.D



윤세웅 목사 신학박사 · 의학박사

- 외과전문의(한국), 비노기과전문의(미국)
- 미국법의학전문, 미국연방항공공무원
- 미주기독교사협회 회장
- 뉴욕지역한인신학교협의회 회장
- 웨이스(Faith Theological Seminary) 총장
-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사장, 이사장
- 뉴욕제일교회 당회장, 뉴욕보수노회장

주최: 뉴욕지역한인신학교협의회, Faith Theological Seminary

후원: KCBN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단비기독교 TV, 기독교저널, 아멘넷

일시: 2016년 11월 2일 (수) 10:00am - 3pm (10:00am - 12:30pm 강의 / 12:30pm - 3pm 점심식사 및 질의응답)

장소: 대동연회장 (다이아몬드울) 150-24, Northern Blvd., NY 11354

문의: 718-840-8931 (총무, 박태규목사) 718-463-1700 (KCBN 총무부장, 차혜영)

* 본 세미나에 참석한 신학생들은 Report 를 제출하시면 3Cr.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서신

미국의 진짜 대통령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여 폐렴으로 요양도 가고, 시력이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기관지 천식으로 호흡곤란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11세가 되던 날,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너의 장애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역사에 신화 같은 인물로 남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던 아이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원이 되었고, 뉴욕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 미국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신화를 이룬 대통령이 되었고, 책도 38권이 저술했으며,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26대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스벨트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3절을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던 테오도르 루스벨트는 병약한 자신을 세계역사에 위대한 신화를 쓰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분의 기도 때

문이었습니다. 당시 남북전쟁으로 동쪽상반의 피가 강을 이루는 비극의 한복판에서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하나님께 전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처음으로 “전국민 금식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자비와 용서를 받을 때, 인간사회에 얽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위시한 인간역사 속에 일어나는 비극들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연설은 게티스버그 연설과 함께 지금까지 링컨의 2대 명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연설 후 전 국민이 금식기도

에 들어갔고 그 기도의 결과 링컨은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역사상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국민들이 링컨 같은 믿음의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링컨의 연설처럼 우리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얽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미국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의 진짜 대통령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역대하7:14).

푸/른/초/장

노기송 목사
(뉴욕 세시대교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죽음을 맞이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 죽음이 어떤 형태로, 언제 다가오든 호 흡이 정지되면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이 언제 내게 올지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의례 겪는 한 인생의 여정으로 알아 담담히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죽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고 죽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목사로서 그런 죽음의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차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두 주 사이에 두 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한분은 저희 작은 아버지이시고, 또 한 분은 저희 교단 같은 지방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이선일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75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달 전 병원에서 별 때, 마지막 인사가 “삼촌 내일 봐요”, “그래 내일 보자”

한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폐렴이 심해 제가 떠난 후 그 다음 날 아침 바로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시다가 그 길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 인사라도 했지만 맨하탄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은, 아빠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드리게 되어 매일매일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도, “아빠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2주가 지나자 병원에서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으니 가족들이 결정을 하라고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가족으로서 제일 힘든 결정입니다. 그래도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라는 담당의사의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며칠간 통곡을 하며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루라도 편하게 보내드리라는 것이 낫다는 마음을 갖고 숙모님과 딸이 결정을 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바로 현실의 슬픔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굴이 밝아지면서 의식도 없는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찬송을 들려드리며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

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자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주 평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성경 재림자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의 죽음이 끝이 아니요 이다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 1990년도에 도미하여 뉴욕안디옥침례교회를 26년간 섬기셨던 이선일 목사님은 아직도 한참 일할 나이인 오십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형용할 수 없이 안타까운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25세에 목사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

지 오직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온힘을 다하여 최선으로 헌신하며 달려온 신실하신 목사님이시기에 더욱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족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타까운 분이 너무 일찍 가셔서 우리가 그 유족들을 위로해 드려야 할 텐데, 이번 장례식 내내 보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유족들을 통하여 은혜와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들이 었기 때문입니다.

올 1월에 비염으로 시작하여 림프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부르시는 그 날까지 암과의 투쟁은 눈물이 날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빠가 암 투병을 할 때는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매달리더니, 막상 하나님께서 불러 가심을 확신하고 나서서 그 슬픔과 괴로움의 현실을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방회장으로 장례식을 준비하는 회장님께 부친 목사님께 서 전화를 하시어, 장례식이 너무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는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기었으니, 기쁨의 장례식이 되게 해달라는 특별 부탁이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내내 온 유족들이 밝은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음의 현실 앞에서 슬퍼하며 좌절하고 통탄하는 분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받아, 죽어도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장례식이 너무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는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기었으니, 기쁨의 장례식이 되게 해달라는 특별 부탁이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내내 온 유족들이 밝은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채드릭 목사님은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슬프고 괴로운 현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26절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쉰 법새까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마라나타!
rhokisong@yahoo.com

“죽음과 부활의 소망”
(요한복음 11장 25절-26절)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병문안을 갈 때마다 항상 웃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 금요일 아침에 부친 되시는 목사님과 통화 중에 우리 아들이 오를 못 넘길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 급히 병원에 계신 사모님께 전화를 해보니 지금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시다며 임종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임종기도를 해드리면서도 그렇게 빨리 임종이 올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앞으로 6개월은 산다고 했기 때 문입니다.

그 후 주일 저녁에 지방회 임원들이 사모님과 두 딸들을 위로하러 교회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과 두 딸이 얼마나 믿음으로 굳건히 서있는지 오히려 그들을 보는

은혜로운 천국환송에배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두 번의 장례식을 하면서 또다시 깨닫는 것은, 인생의 호흡은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언제든지 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이 닥쳐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 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의 그 어는 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창조주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 모두 유족들과도 장례식 내내 웃음으로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장례식을 마칠 수 있는 것도 부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체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산한 한족(화교)



17개의 한족 화교의 통합 프로젝트이다. 중국 한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족집단으로 그 수가 12억에 이른다. 그들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늘날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캄보디아, 태국 등을 포함한 이런 일련의 국가에 살고 있는 한족 공동체에겐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다.

대부분의 중국 한족은 만다린어(Mandarin), 광둥어(Cantonese), 호키엔어(Hokkien) 등 다양한 중국 방언들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

다. 각각 방언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한족은 몽고족의 침입 후 1276년에 타국으로의 이주를 시작했다. 잇따른 재난과 분쟁이 있었고, 중국인들은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 정착해 기반을 잡았다.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배타적인 만큼 확고히 도심에 자리 잡고 상업과 사업 분야에 종사했다. 오늘날 그들은 인구비례 상으로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삶의 모습 이주한 중국 화교들은 주로 도시에서 살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서구화된 국가들에서 주로 사업가로 활동한다. 그들의 사업

범위는 작은 상점에서부터 국제적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의 주거형태도 광범위해 작은 아파트에서 값비싼 맨션에까지 이른다. 그들 대부분은 중국식 식생활을 지키고 있으며 쌀은 여전히 그들의 주식이며, 식기도구로는 젓가락을 선호한다.

2차 대전 중의 일본 침략기간에 민족주의 운동이 모국을 떠난 화교들 사이에서 전개됐고, 이 운동의 구성원들이 중국을 열정적으로 지원했다. 공산당이 1949년에 중국을 점령했을 때 많은 중국 화교들은 혁명주의자들을 지지했다. 이는 그들이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했던 때문이 아니라 강한 지도력과 자신들의 본국인 중국본토의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주목의 대상이 됐다. 왜냐하면 화교들이 공산당의 중국본토 장악을 지지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 관료들은 한족들이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도 공산혁명을 지지할까봐 염려했던 것이다.

많은 화교들은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있는데, 각자 살

고 있는 나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한족 언어들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교들은 중국 전통 관습을 지키는데, 특히 결혼과 가족제도에서 그러하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고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뿌리깊은 중화사상(중국문화가 모든 문화의 중심이라 여김)에 대한 우월성 때문이다.

한족은 그들의 자녀를 애정으로 돌보고 있으며, 특히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관심을 쏟는다. 아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우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또 실제로 많은 시간을 학교공부를 위해 투자한다. 한족들은 공손하기를 유명하고 가능한 한 토론을 피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한번 논쟁이 시작되면 이를 멈추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체면(saving face) 때문이다. 공개 토론 석상에서 진다는 것은 체면을 잃는 것으로 생각한다.

신앙

화교들은 대개 여러 철학들의 혼합형태로 특징지을 수 있는 자신들의 전통 중국 종교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시간을 거듭하면서 불교, 유교, 도교적인 부분들도 섞였다. 그들의 중심된 신앙은 "조화 유지(중용)"라는 개념이다.

또 한족은 미신에 집착하는데, 주로 어떤 행동을 조화를 증진시키고 행운을 가져올지 결정하고자 할 때 별자리 점들을 보곤 한다. 그들은 현세에 거주하는 영들의 신전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조상 영혼들이 이 땅을 떠돌아다니다가 대접을 잘 받으면 자신들에게 행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귀신의 존재도 믿는데, 이는 자신들의 죽음에 한(恨) 맺힌 사람들의 경우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한 맺힌 영혼들은 대개 악하고 짓궂다. 반면 선한 영혼들은 생전에 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혼령으로 인식하면서 이런 선한 혼령들은 자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영적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

비록 한족들은 여전히 이런 신앙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있지만,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상 생활에서 그들은 종교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화교들은 때때로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멸시를 당하기도 한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반화교(anti-Chinese)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화교들은 그들의 사업적 성공과 활발한 상업활동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족들의 영적 결핍은 심각한 상태이다. 그들이 정착한 나라들 대부분이 복음에 개방적이며, 중국방언으로 된 복음화를 위한 자료들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태국 등에 거주하는 화교들 중 거의 극소수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들은 여전히 미신과 잘못된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소중한 민족에게 그들을 진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줄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인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신사도개혁운동 창시자, 피터 와그너 박사 별세

교회성장의 권위자 인이며 신사도개혁운동의 창시자 피터 와그너 박사가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와그너 박사는 1956년부터 15년간 남미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1971년부터는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 교수로 30년 간 봉직했다. 93년부터 2011년까지 글로벌베스트미니스트리(GHM·세계추수사업) 대표를 지냈고, 이후 와그너리더십연구소 대표로 '신사도개혁(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운동을 펼치며 수많은 리더를 양성했다. 현재까지 글로벌스피어스 부대표를 맡고 있었다.

와그너 박사는 선교사와 학자로서 그동안 70여권 이상의 책을 펴냈다. 이중 '효과적 교회성장' 제3의 바람' 등은 유명하다. 이 외에도 '교회의 지각변동'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 '일터교회가 오고 있다' '도미니언' 등이 있다.

와그너 박사는 풀러신학교 교수 시절엔 도널드 맥가브란을 잇는 탁월한 교회성장학 학자로 살았으며 2000년 이후엔 신사도개혁운동을 통한 은사주의와 영적전쟁 등을 강조했다. 특히 2012년 방한했던 그는 신사도개혁운동에 대해서는 사도와 선지자(예언자), 복음전파자, 목사, 교사의 사역을 강조했다. 또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회복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란 점을 주장했으며 이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신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보수 교단과 개혁주의 신학계에서는 "와그너의 잘못된 신학사상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급기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왜곡된 성경관

로 기존 교회를 흔들었다"며 이적과 은사주의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 비판적이다.

'동성애죄 전과' 영국남성 수만명 죽은 뒤에야 사면

과거 동성애 죄목으로 처벌받은 영국 남성 수만명이 죽은 뒤에야 사면을 받는다. 영국 법무부는 20일 과거 한때 시행된 동성애 규제 법규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당 의원인 존 샤키 경이 발의한 이번 치안범죄법 개정안(튜링법)에 따라 동성애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망자들은 자동으로 사면을 받는다. 다만 이들의 당시 범죄사실이 현행 법규를 적용할 때에도 위법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동성애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생존자들은 이미 관련 기록을 범죄 전과에서 지워달라고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생존자들 내무부가 당시 범죄사실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사면을 받는다. 과거 동성애 처벌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6만5천 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1만5천 명으로 집계된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일반 사면 요구는 수학자 앨런 튜링이 2013년 사후 사면된 이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지난해 시작된 청원 운동에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튜링을 연기한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비롯한 64만 명이 서명했다.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 암호기 '에니그마'를 해독해 종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하지만 1951년 동성애 행위로 체포된 후 화학적

거세 치료 등의 논란 속에 1954년에 41살의 나이에 청산가리가 든 사과를 먹고 자살했다. 그는 사망한 지 거의 60년이 흐른 지난 2013년에야 영국 왕실로부터 사후 사면을 받았다.

동성애 행위로 처벌을 받은 뒤 범죄 전과자로 숨진 또 다른 저명인사로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와일드도 1895년 동성애 혐의로 2년의 노동형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부가 사면자 명단을 밝히지 않아 대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샘 지마 법무차관은 "지금은 더는 범죄가 아닌 역사적 성범죄자들을 사면하는 엄청난게 중요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잉글랜드는 21세 이상 남성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1967년에 폐기했으며 스코틀랜드는 1980년, 북아일랜드는 1982년까지 이 법이 존재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튜링 법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탈북민 단체들, '北' 망명정부' 구성 추진

해외 탈북민 연합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가 '북한 망명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년 초 국제탈북민연대 소속 단체가 20개에 이르면 제1차 국제탈북민회의를 열고 망명정부 추진 위원회 발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탈북민연대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11개국 16개 탈북민 단체가 가입돼 있다. 김 사무총장은 올해 연말까지 한국에 있는 주요 탈북민 단체들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과 어긋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해외 탈북자들이 망명정부를 구성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약 4천명, 이중 고령자와 어린이를 뺀 탈북민은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게 해외 탈북민 단체들의 추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망명정부 지도자로 추대하기 위해 유럽에 있는 김 씨(김정은) 일가 한 명과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고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탈북민 단체들의 망명정부 추진 움직임은 성사 여부를 떠나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아시아안理会 가입 좌절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긋고 고립을 자초한 북한이 국제과학계에서도 '왕따'를 당했다.



아시아과학한림원 연합회(AASSA, 아시아안림원)는 21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 가입안건을 무기한 보류했다. 아시아안림원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터키 등 아시아 지역 30개 나라 34개 한림원·과학원을 회원으로 둔 국제기구다.

북한은 몇몇년부터 아시아안림원 가입을 시도했으나 2014년에는 서류 미비로 이사회 단계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가입에 재도전한 북한은 서류 심사를 무난히 통과, 올해 총회에서 아시아안림원 가입이 유력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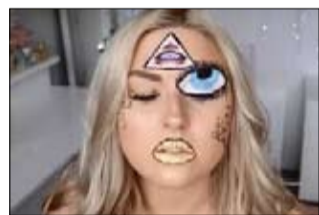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핵·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며 국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북한의 가입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과학계와 정부는 북한의 가입을 저지

하기 위해 회원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안림원은 유엔(UN) 제재가 풀릴 때까지 북한의 가입안건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관계자는 "아시아안림원이 북한의 가입안건을 총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져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 가입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시아과학계의 결판"이라고 말했다.

일루미나티 '할로윈 메이크업' 동영상 소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빠른 속도로 일상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최근 한 블로거는 일루미나티가 할로윈 데이(10월 31일)를 맞아 할로윈 메이크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터넷상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유명한 새는 해리스가 다가오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맞아 특수 메이크업 동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서 해리스는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상징인 전신안과 피라미드를 할로윈 메이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블로거는 "어찌 보면 마녀들의 축제인 할로윈데이에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이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다중이 할로윈 메이크업에 이어, 본격적인 일루미나티 할로윈 메이크업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유독 다중인격을 소재로 한 영화와 무비와 연속극이 많았던 2015년에는 할로윈 다중이 메이크업이 유행한 바 있다.

블로거는 "이번 할로윈 데이에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니 2017년 본격적인 일루미나티의 어젠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겹다", "끔찍하다", "무섭다", "사탄의 문화는 논으로도 귀로도 사람의 정서를 해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국빵집, '동성결혼 용호케이크' 주문 거부했다 때소

동성결혼을 테마로 하는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빵집이 법정 소송까지 당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벨포스트 항소법원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표어를 새긴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애서스 베이커리가 손님 개러스 리에게 500파운드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24일 유지했다.

디클렌 모건 판사는 애서스 베이커리가 손님을 성적지향에 따라 직접적으로 차별해 이런 행위를 금지한 '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원심판결을 옹호하고 밝혔다.

사건은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리가 2014년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케이크를 애서스에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리는 어린이 TV 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의 캐릭터 버트·어니의 모습과 함께 "동성결혼을 지지해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으나 기독교인인 빵집 주인 대니얼 맥아서는 동성결혼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리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보수 기독교 정당인 민주연방당(DUP)이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발생해 주목받았고, 성소수자 옹호자들과 보수 기독교 세력간의 대립으로 비화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맥아서는 주문을 거부한 것은 손님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어긋나는 명분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새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이 케이크를 만들었다면 애서스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셈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총신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욕총신교회 2대 담임 김혜택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관계로 3대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1. 지원자격

- RCA(Reformed Church in America) 신학과 본 교단 사역에 결사자유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M.Div. 이상)
- 목사안수 후 7년 이상 전임(full-time) 목회경력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 이력서
- 추천서: 목회자 포함 3인 (성명, 관계 및 연락처, 추천인이 직접 이메일 접수 가능)
- 본인 및 가족소개서: 목회경력 및 비전, 본인과 사모님 신앙간증문 각 1부, 가족소개 및 사진
-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목사 안수 증명서 1부
- 설교: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3편(설교 원고, 동영상 파일 또는 웹주소)
- 기타: 현재 사역하시는 교회 최근 4주간 주보

3. 제출처

- 이메일: choongsynchurch@gmail.com
- 우 편: Choongsyn Reformed Church in NY (Attn: 청빙위원회) 153-11 Barclay Ave. Flushing, NY 11355

4. 제출마감 2016년 12월 31일

5. 문의

- 이메일로 제출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발송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확인 이메일로 통지해 드리며, 2차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해 드리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13. 신판석

신판석은 1882년경에 태어났다. 신판석(申判錫)은 신반석 또는 신홍균(申弘均)으로도 불렸다. 그는 1901년경에 결혼하였고, 2년 후인



신판석

1903년에 딸 메리가 출생했다. 이 때쯤 그와 그의 가족은 황해도 평산에 거주했다.

하와이

21세의 신판석(Sin Pan Suk)이 그의 부인과 한 살 된 딸 메리와 함께 니븐 마루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했다. 이 때가 1903년 4월 30일이다. 오아후 섬의 예와농장에서 노동하면서 그는 예와교회를 섬긴 것으로 보인다. 신판석의 부인은 1904년 7월 31일에 예와 교회에서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연회의 감독이었던 조지 I. 피어슨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힐로와 올라

1905년 12월 위의 하와이연회는 신판석을 하와이 섬의 힐로와 올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파송했다. 그가 파송되던 1905년 현재 올라교회의 교인수는 16명이었고 평균 출석수는 10명이었는데 1908년에는 세례교인이 24

그런데 1908년에는 신판석이 호노카야교회와 쿠카이아우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이 해에 그는 하와이연회 내 교육부에 소속되어 활



힐로교회, 2016년 현재



하와이 감리교 교역자, 1906년

동하기도 하였다.

신판석은 1909년에도 위의 두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1909년 연회보고에 따르면 그는 목회자 1년 차 시험에서 93.5을 받아 상위권

신판석이 감리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하고 1909년 3월에 호놀룰루 시내 빈야드 스트리트의 켄즈 골목(현 켄즈병원의 일부)에 자유교회를 세운다. 1905년 한일합방이후 배일사상이 투철했던 감리교회 교인들이 친일파로 알려진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연회 감리사 J. W. 와드맨 목사로부터 독립하여 이름 그대로 감리교회에서 자유로운 초교파 교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신홍균(신판석), 김유호, 림봉안, 정진상, 이내수 등 70명의 감리교회 교인들이 탈퇴하여 본 교회를 설립할 당시 출석 교인수는 352명에 이르렀다. 본 교회

가 힘썼던 아동 한국어교육은 자유교회의 건립 사상인 배일사상의 연장선에서 보편 된다. 그런데 하와이연회는 하와이자유교회를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연

건원절

1909년 건원절 행사에 신홍균이 나온다. 국민회관

에 3, 4층되는 태극기를 걸고, 황금 대자로 건원절이라는 표를 건 가운데 무궁화 곡을 부른 후 40여명 학생이 국가를 부르고 국민회 부회장 이내수가 한국의 광복 사업

에 신홍균이 선출되었다. 본 회의 부단장에 강영효였고, 총무에 김윤배였다. 본 독립단은 1919년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박용만이 중심이 되어 350여명이 모여 설립할 때 발회식이 신홍균의 목회지인 자유교회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본 독립단의 목적은 조선 민족의 독립운동에 있었다. 박용만이 1919년 하와이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군사운동에 노력하자 본 독립단은 본 군사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후원하고 신문출판과 아동교육, 상호계조직 등 단원들의 단합을 위해 노력했다. 1928년 박용만의 피살 후 본 독립단은 1933년

부인교육회

1909년 4월에 10명의 부인들이 자유교회에서 '부인교육회'를 조직한다. 자유교회의 전도사 신홍균(신판석)이 이들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고, 자유교회에서 창립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이들 회원이 자유교회 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내다볼 수 있다. 본회는 여성 개화를 목적으로 신학과 가정학을 공부하였지만 그 목적을 기독교 복음화와 더불어 조국 국권 광복으로까지 넓혔다. 본 회가 안중근 회의를 위한 재판을 위하여 10달러를 기부한 사실에서 조국의 국권회복에 참여하였음을 쉽게 알게 된다.

강연하는 신메리

1909년 건원절 행사에 신홍균이 나온다. 국민회관에 3, 4층되는 태극기를 걸고, 황금 대자로 건원절이라는 표를 건 가운데 무궁화 곡을 부른 후 40여명 학생이 국가를 부르고 국민회 부회장 이내수가 한국의 광복 사업



강연하는 신메리

75세 백발

1923년 내지 동포의 수재에 동정하여 의 연금을 모금할 때 신홍균은 2원을 기부했는데 그의

기부에서 신홍균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다시 읽을 수 있다. 이 신문 기사 이후 1962년 1월의 경향신문에 75세 백발노인이 된 신판석이 소개되고 있다. 그는 한국 해군의 DE 72와 71함을 타고 하와이에 정박한 해군사관 생도를 맞은 하와이교포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인교포들이 국민회와 동지회의 간판을 이웃에 걸어놓고 반목하였는데 1962년 1월 현재 이곳 7천여 명의 교포들이 '태극구락부'라는 새 단체 아래 어울렸다면서 "우리 교포들은 공연히 마음에 답을 쌓고 지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반목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였다.

신메리

신메리가 1983년 향년 80세에 소천하면서 잊혀졌던 그녀의 아버지 신판석의 이름이 신문에 소개된다. 신메리는 하와이의 '대한소리리'의 서기로 활동하였고, 이원순과 결혼한 후 하와이 부인구제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그녀의 독립유공을 기념하여 신메리에게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였다.

damien.sohn@gmail.com

1903년 부인과 딸 데리고 하와이 도착, 1905년 2개 교회로 파송 친일파 감리사와 결별 1909년 초교파 자유교회 설립, 24년간 목회한 듯 광복운동도 적극...1919년 자유교회서 대조선독립단 발회식 총단장 선임



하와이연회, 1907 신판석이 태극기 아래 중간줄에 보인다

목사 지망생에 속했다.

자유교회

회에 소속된 기 도처로 소개하고 1910년까지 본 하와이연회 산하에 있는 것으로 문서화했다. 이후 1925년 6월 본 교회는 해체되고 다시 감리교회에 합동하게 된다. 이때까지 신홍균이 본 교회를



대조선독립단, 신판석 (아래 오른쪽), 박용만 (아래 가운데)

을 격려한 후 자유교회 목사인 신홍균이 단상에 올랐다. 그가 '대한의 국운을 크게 불러 만좌가 감개하였다'는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다.

대조선독립단

1919년 대조선독립단의 총단장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종교평화위원회: 2월 10일 (월) 오전 11시 캠퍼스, 유년: 오후 2: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1:00 수오예배: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주일 3부예배: 오전 10:45 주일 4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8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n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시애틀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rs.com	앵커리지베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4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시애틀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ljr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오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원년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성경도 신앙 (18) 청교도들의 예배 (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4. 예배의 성경적 원리

1) 루터의 예배관

루터는 중세의 예배를 성경에 명하거나 지시된 적이 없는 미신적으로 인위적으로 보았다. 그는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예배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며, 화체설과 사체를 통한 죄의 고백 등 비성경적인 것들을 비판하고, 성경에 근거한 예배의 회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금할 필요가 없다'는 관용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인위적인 예배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실수를 범하였다.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예배를 고안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루터가 로마 천주교회 안에 남아있는 인위적인 예배 요소를 포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루터교회는 예배나 교회 정치에서 로마 천주교회의 것을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칼빈의 예배관

루터와 달리 칼빈은 성경만이 교회와 사회 전 영역을 다스리는 규범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금한다'는 명제를 그의 신학 원리로 채택하였다. 그는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찬성과 이웃 사랑을 고무시키는 것으로 보고, 덕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을 예배에 포함하려고 하지 않았다. 순진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과장된 허식적인 요소가 예배에서 제거되어 예배는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드러야 하며, 불필요한 동작이나 행위, 또는 언어와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다.

칼빈은 이처럼 예배의 목적과 성격을 말하고, 교회가 고백해 온 신앙 고백이나 교회의 전통을 예배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예배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예배의 내용이나 방법을 인위적으로 고안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예배드릴 것을 주장했다.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본

질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지엽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본질적인 것에 교리와 예배를 포함시켰고(기독교강요, 3장 20, 29항, 2장 7절 33-34항), 이성적이거나 전통적이라는 핑계로 인위적인 교리나 예배를 고안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배 장소나 시간이나 성찬식 때 쓰이는 포도주에 대한 것들은 지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지엽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하여 성도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기독교강요 4장 12, 43항).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경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3) 칼빈과 청교도 개혁주의에 따

루터보다 강한 칼빈의 예배관 선택... 제 1계명에서 하나님만 예배 대상인 것 밝혀 1계명 금지사항을 신앙적 미지근함, 하나님일에 무감각, 배교까지 구체적으로 해석

른 예배의 대상

가) 칼빈의 제 1계명에 대한 해석 칼빈은 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 교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명령 곧 금지와 명령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신뢰, 또는 그분에게 돌려야 할 선행이나 덕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인간이 만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지없는 여자가 자기 남편 앞에서 정부를 끌어들이어 남편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다(강요 2장 8, 16항).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말과 몸짓, 외적인 표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만 경배하며 양모라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밝히는 것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양모(Adoration), 신뢰(trust), 기원(invocation), 감사(thanksgiving)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양모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위대성에 머리를 숙여 공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며, 신뢰

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는 것이며, 기원은 곤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만 의지할 것을 구하는 마음의 습성이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라고 하였다(강요, 2장 8, 16항).

이와 같은 예배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만 돌려야 하고, 모든 인위적인 신들은 마음으로부터 몰아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이라도 감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이와 같이 제1계명을 통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임을 밝히면서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성자들이나 천사, 인위적인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였다.

다) 칼빈이 영향을 끼친 하이델 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나타나는 예배의 대상

칼빈의 이런 사상은 독일의 교회 개혁자요 칼빈주의자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와 Caspar Levanus)가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Heidelberg Catechism)'에도 나타난다. 요리문답서는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교훈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요구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칼빈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신뢰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을 피상적으로 금한 것과는 달리, 독일의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우상숭배와 마술을 피하고 버리며, 성자들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피조물에게 비는 행위를 금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우상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그런 하나님 외에 의지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95문), 성도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교도들의 예배의 대상에 대한 해석

청교도들은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제 1계명의 내용이 예배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며, 예배하는 자에게 필요한 요구 사항과 금지 사항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임을 알고 인정하며, 그분만 생각하고, 목상하고 기억하며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며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고, 믿고 의지하며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전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며, 어떤 경우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대소요리문답서 104문).

마) 제 1계명이 금하는 것에 대한 내용

제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신론과 우상숭배만 아니라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태만시하는 것, "헛된 미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간의 심성에 일어날 수 있는 "의심과 절망과 완고함과 심판에 대한 무감각, 마음의 강박함과 교만과 뻔뻔스러움, 육체적인 생활의

방종,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을 택하고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것, 육에 속한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을 금한다고 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배교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선언하고, "성자들이나 천사들 또는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것" 등을 정죄하였다(대요리문답서 105문).

청교도들은 칼빈이나 독일의 개혁주의자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 1계명을 해석하였으며,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명장하였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임을 강조하였으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과 성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와 인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을 정죄하였고, 무신론이나 불신앙적인 사상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청교도의 성경 해석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평등으로 이어졌고, 평등사상에 근거하여 피조물을 절대화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었다.

youns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길을 간다

길이 있다. 나는 길을 간다. 노랑모자 쓰고 유치원 가던 병아리 같은 시절도 핑크빛 사랑에 잠 못 이루던 밤도 예수님 십자가에 내 맘 빨강게 물들었던 시간들도 어느덧 지나 엄마의 길, 사모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간다.

길을 걸으며 일상의 유쾌한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배신 분노 원망 외로움... 이런 듯한 상처들로 골이 쳐서 가슴이 아픈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주님! 하면서 앞드리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많은 세월을 같이 걸으며 함께 밥을 먹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공유하며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아직도 사랑하면서 사는 일이 끝까지 서툰 일이라서 혼신을 다한 사랑의 몸짓들로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 우리네 삶이 건널 것들 제대로 건너야 진정한 삶인데, 그 건너지는 일이 어쩌면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라 부질없이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얼까? 우리 인생이 무언가 하나씩 잃어간다는 것은 조금씩 더 영글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폭삭 영글어가는 것은 말말이 되어 죽어야 산다는 성경의 진리 때문에 오늘도 잃어가는 아픔을 절절히 느낀다.

사실 우리는 많은 일거리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정작 우리를 탈진되게 하고 기력을 잃게 하는 것은 많은 일거리도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 때문이라. 우린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싸워도 보고 안되면 소송까지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보는데 정작 관계가 서원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별로 애써 보지도 않고 내버려 둔다.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건디고 견디야 할 질긴 인연인데... 장난감 하나로 온 세상을 바꾸는 천진한 아이 마음으로 제자의 발을 씻긴 낮춤의 비결을 체득할 수 있다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때론 고여서 썩은 물과 같이 편안하게 안주하려던 한숨 나는 생활을 나의 진통과 맞바꾸는 진한 훈련이 죽을 것 같이 힘든 때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가슴에 꼭 박힌 주님의 그 처절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오통이처럼 일어나 또 살아가는 그것은 '영이 행복하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라.

그렇다 하루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인데 늘 이렇게 살지 말자고 변화해야 한다고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수 십번 결단하고 산들 그것이 아직 내일의 일이라면 금기야는 고장이 나고 관계가 깨지고 병이 나고 말 것이다. 무엇이든 매일 같이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늘 하루 꼭 차게 매일 하던 일을 신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 대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어쩌려든 우리는 무지와 가난 두려움 질병...으로부터 조금씩 탈출하여 매일 이기고 매 순간 나를 초월하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야말로 매일의 우리 일과이다.

내 욕망 중에 최고 욕망은 '참 나'를 살고 싶은 욕망인데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길을 나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리라. 이 길 끝에서 내 주님을 만날 때까지...

changsamo1020@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7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인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7년 5월 12(금) - 15(월)
2) 고시 장소: Anchorage, Alaska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설교원고 (이상4항)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에레미야 31:31-37
(2) 신약 주해 - 요한복음 8:13-27
(3) 논문 제목 -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신관을 비교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함축적의미를 논하라.
(4) 설교 본문 - 열왕기상 21:9

②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고시 기간 중 설교설문고시를 지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①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SunghoonChoTExegesisPaper.pdf)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7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만 사인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CPNY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7년 3월2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1회 총회기간(5월16일-19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2일-15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Rev. Sunghoon Cho) / Email: kfpcny@gmail.com
주소: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 전화: (718) 986-8442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허윤준 목사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cny@gmail.com
3) 고시부 회계: 조중철 목사 (845) 598-6757, drjho@hotmail.com

절반의 성과 2016 다민족기도대회

Heal Our Land! 주제로...타인종 참여도 낮아

2016 다민족 기도대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가 'Heal Our Land!'라는 주제로 23일 오후 5시에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열려온 다민족 기도대회는 특별히 대신 등 미국의 영적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를 대비해 마련이 됐다.



2016 다민족기도대회가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하지만 비가 오는 가운데 열려서인지 다민족기도대회라 불리기 민망할 정도의 타인종 참여도 저조했다. 지난해에는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에 열려 낮은 타인종 참여도로 여겼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적은 숫자의 타인종 참여를 확인하게 됐다.

더구나 한인들의 참여도 작년에 비해 뒷걸음질친 느낌을 줬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엔 남가주의 대형교회 차량이 눈에 띄었지만 각 교회의 리더들만 참석할 듯 한 인상을

주었다. 기도할 사람들만 모였다는 위안을 스스로 해야 할 정도였다.

취재진들 중에는 차라리 은혜한 인교회 등 대형한인교회에서 기도대회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이 회개와 회복, 부흥과 선교, 사회정의, 차세대 등의 주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한 이번 기도대회는 여러 다민족 지도자들이 기도를 인도했다. 국가기도의 날의 디온 엘모어 목사는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기도했다.

또 전세계 기독교 박해 문제를 다루는 ICC(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의 제프 킹 대표가 필박박는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흑인인 프레드 베리 목사가 아자사 부흥운동에 대해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다. LA 지역에서 흑인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윌리엄스 목사는 인종간 화해를 위해 기도했다.

다민족 외에 한인 차세대들도 기도를 인도했다. 스티븐정 목사(리바이교회), 제프현 목사(남가주사랑교회 EM), 김환신 목사(은혜한인교회 EM), 이영복 목사(순 무브먼트), 데니스콜 전도사(감사한인교회) 등 영어권 차세대 사역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놓고 기도했다.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16 다민족기도대회, 작년에도 대다수의 한인들과 극소수의 타인종이 모여 기도회를 가졌지만 올해는 1500여명이 참석해 인원동원에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단상에서 내놓는 기도제목을 갖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 모습은 기도회의 취지에 부합한 모습이었다.

다만 줄어든 인원과 다민족기도대회라 불리기 민망할 정도의 타인종 참석은 절반의 성과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 차기 다민족 기도대회의 개선점으로 남았다.

(박준호 기자)

기도/칼럼

고난의 인생, 복된 인생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다. 고난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에게 찾아온다. 뜻하지 않는 재난, 질병, 경제적 시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별, 마음의 상처 등 너무나 많다. 고난이 있으면 불행한 인생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고난만을 생각하며 좌절하거나 절망하며 슬퍼할 때는 고난이 불행이 된다. 하지만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때 고난은 행복의 조건이 된다.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조개가 모래를 깔아안고 아픔을 견뎌낼 때, 영롱한 진주를 만들 어낸다. 산모는 진통 끝에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

하나님 크로소비 여사는 맹인이었지만 은혜로운 찬송시를 칠천편이나 지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지며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지만 국무총리가 되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쓰임 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다. 고난은 결코 해악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해 질 수가 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

어려울 때 밝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극심한 고난이 올 때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두 손을 모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십자가를 목상하며 인내하여야 한다.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어 주신다. 인생의 먹구름만 바라보지 말자.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태양을 보자. 희망을 가지자. 고난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119:71).

bible66@gmail.com

2016년 12월 27-30일
지금 신청하세요
 18세 이상 / 대학생
 1 차등등록 마감 \$250 10월31일
 2 차등등록 마감 \$300 11월30일
 3 차등등록 마감 \$350 12월23일
 숙박/식사 포함
 GKYM 키즈 (5세-12세) \$150 (고정회비)

“다음 세대 세우는 청년운동으로”

GKYM, 12월 27-30일 뉴욕 로체스터

GKYM(Global Kingdom Young-Adult Mission) 세계청년 선교대회가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뉴욕 로체스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0회가 된 GKYM 대회는 이번이 다시 뉴욕 로체스터에서 열린다.

강사는 OM장립자 조지 버워, 로잔운동 총재 마이클 등 GKYM을 이끌어가는 1.5세 목사가 강의를 맡는다. 선택강좌는 현장체험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적 말씀을 전하며 도전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특별히 소그룹 모임이 준비됐으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참가자들에게 주어질 달란트 쇼가 계획돼 있다.

주최측은 “GKYM이 선교운동이며, 교회들이 함께 하는 교회운동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청년운동”으로 “청년들이 이 대회에 중심인 만큼 18세 이상 또는 대학생들이 대회 대상이지만 1세 어른들도 올 수 있으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위해 GKYM Kids가 준비돼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가 따로

진행되며 저녁 집회는 연합으로 드러진다”고 밝혔다.

등록내용은 www.gkym.org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며 1차 등록(10월말)이 숙소 포함으로 250달러다. 대회 장소는 로체스터에 있는 컨벤션센터이며 컨벤션에 붙어 있는 하얏트, 라디슨 호텔에서 숙소가 준비된다.

주최측은 이번 대회에 3000명 이상 참가자들이 모일 것을 예상한다며 “미동부와 캐나다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 은혜 받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GKYM은 2008년 나이아가라에서 시작해 꾸준히 북미한인교회 청년들을 모아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는 대회로 자리 잡아왔다. 북미 한인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제는 1.5세, 2세가 이끌어가는 대회로 나아가며 모든 민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준비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2016 남가주한인신학교 연합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남가주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

종합우승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준우승 윌드미션대학교

2016 남가주신학대학 연합 체육대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윌드미션대학교, 미주장신대학교, 국제개혁대학교가 참가해 축구, 축구, 배구, 피구, 릴레이 등 경기를 통해 자웅을 겨룸과 동시에 학교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가 영예의 종합우승을, 윌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준호 기자)



연합집회를 마치고 강사(가운데)와 준비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오른쪽 세 번째가 교협회장 김해근 목사.

“성령으로 새롭게” 강사 유병용 목사

스태튼아일랜드교회 연합부흥집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해근 목사)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연합부흥집회를 가졌다.

“성령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서울송과 브니엘교회 담임 유병용 목사를 강사로 뉴욕만백성교회에서 열린 집회는 교협 산하 10개 교회가 참여했다.

10개 교회는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훈 목사), 뉴욕만백성교회(이종범 목사), 뉴욕성결교회(장석진 목사), 새생명커뮤니티교회(김홍석 목사), 순복음새소망교회(오조나단 목사), 스타튼아일랜드연합장로교회(김명기 목사),

스태튼아일랜드은혜장로교회(홍명철 목사), 스타튼아일랜드중앙교회(김성권 목사), 스타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목사), 은누리영광교회(김해근 목사).

유병용 목사는 첫날 저녁 “성령의 능력으로”(행1-6-8), 둘째날 새벽 “기도”(눅18:1-8), 저녁 “축복의 율리”(창32:24-29), 셋째 날 오전 “기적의 신앙은”(요2:1-9), 저녁 “축복의 열매”(삼하6:11)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기사제공: 스타튼아일랜드교회)



제16회 오네시모 선교회 디너 후원의 밤 행사에서 오네시모 후원회 찬양팀이 특송을 부르고 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5면에서 계속)

즉,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서 자연스레 성전환자는 따라오고, 이제는 소아성애자들에 대한 것만 합법화 시키면 사실상 이슬람이 원하는 성향의 사악한 정책이 미국 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이미 입성한 성전환자들이 미국의 미래를 보여준다

2015년 6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마자, 8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미국 최초로 성전환운동가이자 성전환자(Raffi Gursban)를 백악관 중책인 인사과에 앉히고, 9월에는 미국최초로 동성애자인 Eric Fenning을 미국의 중책인 육군참모총장(U.S. Army Secretary)으로 뽑았고, 2016년 5월에는 미국 최초로 대통령들의 영적인 것을 자문해주는 백악관의 “신앙자문인 위원” 자리에 성전환 운동가 Barbara Satin(본명 David Satin)을 뽑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재단-이슬람과의 친밀한 관계

힐러리는 오바마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친이슬람정책을 펼칠 후보

자라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은 조사들을 통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힐러리의 오른팔과 같은 캠페인 매니저는 힐러리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이슬람국가에서 잘 알려진 독실한 무슬림 가족들이 있으며, 그녀 역시 독실한 무슬림 여성입니다.

결론

2008년과 2012년에 우리가 했던 실수(오바마를 다시 뽑은 실수)를 또 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상황이 안된다고 해도, 적어도 지금 오바마와 힐러리정부(민주당)에서 자행되고 앞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악을 꼭 막아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더 성행하면 그 악과 독의 열매는 우리 자녀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부모도, 조모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과 저희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투표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아직까지 고수하는, 많이 부족하고 좀 썩어있어도 소망이 있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미성대학교 주최 제31회 성결포럼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발제자 권혁승 박사, 네번째가 논찬자 편요한 박사

‘복으로서 살롬의 성서신학적 의미’

제31회 성결포럼, 발제자 권혁승 박사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는 제31회 성결포럼을 ‘복으로서 살롬의 성서신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24일 오전 10시30분 권혁승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황의정 박사(사회로 열린 성결포럼은 김광렬 박사(이사장)이 환영의 말씀과 기도를 했으며 권혁승 박사가 발제를 편요한 박사(분교 교수)가 논찬을 했다.

권혁승 박사는 “성경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살롬은 구원과 관련하여 전인적이고도 통전적인 복 개념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살롬은 구약시대 은혜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복이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축복기도 속에서도 은혜와 함께 평강은 핵심내용이다”라고 말하며 “살롬은 개별적 상태보다는 상호간

관계성이 강조되며 부분보다는 전체성이 강조되는 통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개인적인 살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복”이며 “공동체적 살롬은 사회의 가난하고 연약한 계층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주시는 살롬의 복을 누리는 것에 머물지 말고 과제와 사명의 복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도전 앞에 서있다”며 “받은 복에서 주는 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이 살롬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같은 자에게 사랑을” 주제로

제16회 오네시모 선교회 디너 후원의 밤 성향

제16회 오네시모 선교회(대표 김석기 목사) 디너 후원의 밤 행사가 디너 후원의 밤 행사에서 오네시모 후원회 찬양팀이 특송을 부르고 있다

심선희 권사(오네시모 후원회장)의 인사말씀과 강성규 목사(오네시모 청소년부 목사)의 기도사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구원화 사모(CCM 가수), 메조소프라노 정희숙 씨, 발렌시아고등학교 학생들이 출연하여 찬양했으며, 변성수 선교사(오렌지카운티구치소 채플린), 멕시코 센로이스 성경대학에서 사역하는 샘 목사와 오스카 목사, 엘레나 헤르난데스 선교사(테하차리 교도소 채플린)가 간증했다.

김석기 목사는 인사말에서 “한해 동안 오네시모선교회의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오게 하시고 함께 세우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음악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명과 부르심에 응답하고 열매 속에 있는 재소자 가정과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일어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가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공고했다. 응시자격은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정규 신학교 M.Div 학위 졸업자나 2017년 6월 이전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후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이 있는 자로 고시일자는 2017년 5월 12(금)-15(일), 장소는 알라스카 앵커리지다. 고시과목은 a)필기고시: 교회사, 조직신학, 미국장로교회사, 헌법 b)제출고시: 구약주해, 신약주해, 논문, 설교원고 c)면접고시. 응시서류는 신학교 졸업증명서, 신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이력서, 명함판 사진 2장과 고시료 150달러를 내야 한다. 모든 서류 및 고시과목 원고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 (718)986-8442/고시부서기 조성훈 목사(kfpcny@gmail.com)

소프라노 에리카문 독창회

소프라노 에리카문 독창회가 심금음반 발매 기념으로 10월 30일(주) 오후 6시 플라싱 JHS 189 강당에서 열린다. 티켓은 10달러. ▲문의: (718)414-4848



뉴욕 초대교회 임직자들과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뉴욕과 세계를 변화 뉴욕초대교회 설립35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설립 35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지난 23일 오후 5시에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김승희 목사는 “지난 35년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5년 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는가.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35주년을 아름답게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며 동거 동락한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김승희 목사 인도로, 기도 이회선 목사(새인약교회), 성경봉독 최현준 목사(로렐교회), 설교 방지각 목사(뉴욕교협 경정회장), 헌금기도 허윤준 목사(뉴욕전도대 학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초대교회의 7대 운동”(행2:42-47)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종교개혁이란 결국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7

가지 특징을 설명하면서 “초대교회처럼 말씀 운동, 사랑 운동, 기도 운동, 공동체 운동, 하나님 운동, 세상 할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 뉴욕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뉴욕초대교회가 되라”고 부탁했다.

2부 임직식은 임직자와 교인 서약, 안수기도, 공포, 임직패 증정, 축송 뉴욕장로성가단, 임직자에게 권면 손성대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 교우들에게 권면 신현택 목사(뉴욕교협 경정회장), 축사 김용길 신부(뉴욕교협 경정회장), 기념품 증정, 감사 송재구 장로, 인사 및 광고 박종규 장로(준비위원장), 축도 김영환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만찬기도 안창의 목사(뉴욕교협 경정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직자는 △장로 송재구 △명예장로 백상진 △안수집사 김복영, 김준식 △명예안수집사 박재기, 이남길, 이영기, 이철재, 정종호, 정준희, 진창영, 최세열 △권사 김혜선, 박정숙, 이계희, 이복순, 이순복, 정경화, 정명옥 △명예권사 강순화, 오효병, 윤영순 등 22명이다.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김원기 이사(왼쪽 첫 번째)와 이병홍 지회장(두 번째)이 '사랑의빵집'을 방문했다. 맨오른쪽 송모세 박사.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연길 사랑의빵집 방문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이병홍 지회장과 김원기 이사가 북한의 어린이 식량지원의 일환인 '사랑의빵집'(송모세 박사, 미국국적)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병홍 지회장은 “미동부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 국제사랑재단 본부사역(http://www.iff2004.org)을 지원했다”며, “중국 연길에서 운영 중인 '사랑의빵집'은 현재 제빵과 카페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사랑재단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위해 중국 국내법규에 따라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업체”라고 소개하고 “본 사업체는 국제

사랑 뉴욕지회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설립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사랑의빵집(사랑의카페) 송모세 박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뉴욕을 방문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다.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는 관심 있는 교회나 개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 (917)225-2000(지회장 이병홍 목사), (917)385-5021(사무총장 송일권 목사)

(기사제공: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거짓없는 사랑과 형제우애로 존경받자”

뉴욕목사회 제 3차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마지막 제 3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김상태 목사

인도로 기도 주효식 목사, 말씀 문석호 목사, 통성기도, 광고 장현숙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사랑, 우애, 존경”(롬12:9-13)이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그림이 잘 팔리는 어느 화가가 자신이 가짜 그림쟁이가 됐다는 고백을 들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며 “목회의 본질을 알지만 뛰어다니다 보면 왜 목회를 하는지 스스로 묻게 된다”고 말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며,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목회자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의는 김영환 목사 사회로 김용의 목사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 업무보고, 회계보고, 안건토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뉴욕목사회 제 3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특별연합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도하며 섬기는 해’ 실현 뉴욕목사회 특별연합기도회 개최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특별연합기도회가 지난 24일 오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려 조국과 미국과 뉴욕과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장 김영환 목사는 “목사회는 2016년을 ‘기도하며 섬기는 해’로 정하고 기도해왔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이며, 모여 기도할 때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 기도하며, 기도회를 통해 뉴욕교계가 죄를 회개하고 영성이 회복돼 성령충만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총무 허윤준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와 기도회는 1부 예배에서

장현숙 목사의 대표기도 후 부회계 안경순 목사의 성경봉독, 신석환 목사(부활의새빛교회 담임)의 설교(“예수의 스티그마타”, 갈 6:17)가 있었다.

이어진 기도회는 “청소년을 위한 기도”(임용수 목사), “조국과 조국통일을 위한 기도”(박진하 목사), “대선과 미국의 영적각성을 위한 기도”(김홍석 목사), “뉴욕복음화와 뉴욕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박준열 목사)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김영환 목사는 “교협과 목사회를 위해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했으며, 안창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제44회기 뉴욕목사회는 11월 산상기도회를 남겨두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산상기도회 참석자들이 단풍관광 중에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1박2일 산상기도회 및 단풍관광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가 베어마운틴과 세븐레이크로 1박2일 산상기도회 및 가을 단풍관광을 다녀왔다.

17일 오전 8시 뉴욕을 출발한 일행들은 베어마운틴과 델라웨어 강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며 포코노 키스 프로덕션(대표 장영진 장로)의 후원원 키스 비전센터에 도착, 저녁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동행한 임병남 목사(뉴욕평화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18일 아침강의도 맡았다. 당일 오전 10시 출발, 뉴호프에서 아이비랜드 레일로드를 타고 마지막 코스로 사과밭에 들렀으며 저녁 7시 뉴욕에 도착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몸소 섬김과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회를 인도해주신 임병남 목사님과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설립 38주년 감사음악회에서 찬양대가 합창하고 있다.

뉴욕목사회는 7월 25일 2차 임실행위원회 이후 △성극 ‘삼손’ 관람 △목회자 자녀 장학금 수여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치렀으며 후반기 행사로 특별연합기도회(24일), 베어마운틴 산상기도회를 계획하고 있다.

재정은 총수입 41,400.17달러, 총지출 37,697.57달러, 잔액 3,702.60달러로 보고했다. 목사회는 이번 회기에 뉴욕청소년센터, 뉴욕한인회, 네일협회 등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임실행위원회 김승경 목사(뉴욕퀸즈교회 담임, ECA), 이창중 목사(동서교회 담임, 미주예수교장로교회 복음성회), 정인수 목사(뉴욕 좋은교회 담임, KAPC)를 소개했다.

이날 임실행위는 김홍석 목사의 폐회 및 식사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42회기 정기총회 사전등록 237명 10월 31일 프라미스교회...작년 총회보다 34명 많아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오는 31일 열리는 제 42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창성 목사) 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사전등록제를 결정했다.

지난 17일까지 사전등록을 받은 결과 138개 교회에서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229명과 경정회장 8명이 등록해 투표 가능한 총 대의원 수는 237명이 됐다. 참고로 지난해 총회에서는 195명이 투표한 바 있다.

사전등록한 237명의 명단은 교협 웹사이트(http://nycckg.org/)에 공개돼 있다. 등록 명단중 교인이 아닌 사람이 특정교회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거나, 특정 후보가 등록비를 대납해 준 것을 아는 경우 선거관위로 신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있다. 올해에는 회원교회뿐만 아니라 증경회장에게도 사전등록을 받았다.

이번 선거관위는 일체의 식사대접과 금품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철저한 사전등록제를 한 것이 큰 이슈로 남게 됐다. 선거관은 만약 특정 후보가 식사나 금품을 제공한 것이 밝혀지면 후보를 탈락시키거나 당선후에도 당선무효를 시키기로 후보들과 합의한 바 있다.

사전등록한 237명의 명단은 교협 웹사이트(http://nycckg.org/)에 공개돼 있다. 등록 명단중 교인이 아닌 사람이 특정교회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거나, 특정 후보가 등록비를 대납해 준 것을 아는 경우 선거관위로 신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기쁨과영광교회 설립15주년 새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그 자리에서 기념 촬영 했다.

“R-부흥, E-교육, M-선교와 전도” 기쁨과영광교회 설립15주년 새성전 입당감사예배

두 여성목사(전희수, 권금주)가 협력목회로 시작한 기쁨과영광교회가 설립 15주년을 기념하고 새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전희수 목사는 “지난 15년 간 3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간증하며 “우리 두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고백한다. 앞으로 15년의 비전을 갖고 나가겠다. 1년 동안 증축하면서 예배처소의 중요함을 절실히 알게 됐다.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저녁 5시에 열린 입당감사예배는 권금주 목사 인도로 김홍석 목사(뉴욕교협부회장)의 기도 후 백성용 안수집사가 성경봉독했으며, 살렘찬양단(글로벌뉴욕여목회)의 특송 후 이종명 목사(뉴욕교협 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이종명 목사는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교회”(행4:43-4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어왔지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초대교회”라며 “예배와 찬양의 삶이 있는 초대교회는 ①말씀 배우는 삶 ②서로 교제하는 삶 ③

서로 떡을 떼는 삶 ■기도에 전념하는 삶이 있었다. 기쁨과영광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이 놀라 두려워하며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월드밀알중앙찬양의 헌금특송 후 조상숙 목사(글로벌케네디커뮤니티교회 회장)가 헌금기도, 전희수 목사가 인사 및 감사말씀을 전했다.

이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성전과 새목사(뉴욕교협 총무)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만찬기도는 김용욱 목사가 맡았다.

(유원정 기자)

likumc 설립 38주년 감사예배 및 음악회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likumc, 담임 장재웅 목사)가 설립 38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음악회를 열었다.

지난 16일 저녁 5시 본당에서 열린 예배는 장재웅 목사 사회로 기도 김영주 목사, 성경봉독 니키킨스 집사, 말씀 이준훈 목사(“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창 3:1-13), 봉헌송 데이빗 패터슨&정아 피터슨, 봉헌기도 김광일 목사, 축사 이용연 목사의 순서로 진

행했다. 트럼펫 연주로 시작된 음악회는 합창과 4중주, 솔로, 4중창 등으로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교인들과 찬양대와 뉴욕기독교방송국 찬양대, 케리그마남성콰이어 등이 출연했다.

참석자들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합창한 뒤 린다 베이츠 목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다민족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한다!

Kids Kingdom Rally... 어린이전도 부흥회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에서 주관하는 다민족 어린이 전도 부흥회가 "Kids' KINGDOM RALLY"를 주제로 10월 29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LA에 있는 토마스선교교회에서 실시된다.



어린이전도협회 주관 다민족 어린이 전도 부흥회 Kids Kingdom Rally가 오는 29일 토마스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있었던 부흥회 모습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점점 감소하고, 어린이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요즘,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한 어린이 전도 부흥회가 실시되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6년 다민족 어린이 전도 부흥회는 LA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어린이들을 초대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어린이들에게는 선교적 사명으로 무장하는 기회

가 될 수 있도록 영상과 비전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맞는 재미있는 비디오(Fun video) 상영으로 오픈해, 토마스선교교회 선교팀의 블랙라이트 인형쇼, 린다문 전도

사가 이끄는 라이브 밴드의 뜨거운 찬양과 율동, 바이올리나학교 교수

가 될 수 있도록 영상과 비전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맞는 재미있는 비디오(Fun video) 상영으로 오픈해, 토마스선교교회 선교팀의 블랙라이트 인형쇼, 린다문 전도



ANC은누리교회는 김태형 제2대 담임목사 위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우측상단 타원안은 김태형 담임목사

제2대 담임 김태형 목사 위임예배

ANC은누리교회...2011년부터 차세대담임 사역

ANC은누리교회 제2대 담임 김태형 목사 위임예배가 23일 오후 4시 본 교회 본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태형 목사(ANC은누리교회 인랜드캠퍼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주셔서 지금까지 왔다.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제자 만드는 것"이라 언급하며 "차세대 담임목사를 하면서 단독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다. 다만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담임목사 임직을 받게 된 것이다. ANC가 하나님나라를 세우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호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위임예배는 전지능 목사(ANC케이언스필드 캠퍼스)가 기도를, ANCC연협성가대가 특송을 했다. 이어 최경욱 목사(토마스선교교회)가 "일하시는 하나님"(빌 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목사위임 선언, 위임서약, 성도서약, 선포가 있었으며 신상준 장로가 위임패를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유진소 목사(부산호산나교회)가 영상으로 축사를 했으며, 강

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축사, 벤신 목사(탈벗신학대 교수)가 권면, 브랜트 와스크 목사(퐁비치 CRC)가 회상, 김태형 목사가 인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김태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ANC은누리교회 2대 담임 김태형 목사는 11세 때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와 LA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1.5세대다. 바이올리나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탈벗신학대에서 M.Div 학위를 그리고 풀러신학대학교에서 Th.M 학위를 취득했다. 로고스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하며 목회의 기초를 쌓았고 중부영락교회 EM목회를 거쳐 지난 1999년 1월 LA은누리교회(ANC은누리교회 전신)에서 EM과 교육부를 섬겨왔다.

김 목사는 마음에 품고 있던 선교의 부르심에 따라 2003년 캐나다 원주민선교사로 파송받아 5년간 선교사역을 했으며 미국으로 돌아와 한어권 선교담당 목사로 3년 사역하고 지난 2011년부터 ANC은누리교회 카운실 결정으로 차세대 담임목사로 사역해왔다.

(박준호 기자)

온 가족을 위한 더불어 행복하기 세미나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1-80세 150여명 참석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10월 22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온 가족을 위한 '더불어 행복하기' 세미나를 중앙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세 어린 아이부터 80대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한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족구성원 각자의 마음 속 행복이 온 가족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 강의를 맡은 수잔정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이러한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청할 것을 조언했다.

주제 강의가 마친 후 이어진 선택 강의는 안원희 선생이 '공감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풀은 선생이 '학부모교실', 실비아린 선생이 '헬시라이프', 잔김 선생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수잔정 박사가 '어린이양육 팁' 등의 주제로 나누어 참석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수업을 듣는 시간으로 소그룹 상담 형태로 진행됐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날 부모님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을 위해 전문카운슬러들이 이끄는 연령별 '힐링플레이' 클래스를 준비하

이며 CEF 디렉터였던 다니엘 엘리웃 목사의 영성 깊은 복음의 메시지와 구원초청, 칼로스 정 목사의 가스펠 매직쇼, 존 여 전도사의 재미있는 게임 등으로 즐겁고 은혜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대상은 K-6학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린이들은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특별히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티셔츠와 구디백(Goody Bag)이 선물로 주어진다. 자리가 한정돼 있어 10월 24일까지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으며 등록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전도협회(213-382-1544)나 이메일(cefkorean@gmail.com)로 문의하거나 www.cefkoc.com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어린이전도협회)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온 가족을 위한 더불어 행복하기 세미나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 수잔정 박사가 주제강연을 인도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제 5회 삼삼오오 찬양예배

LA지역 작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찬양예배를 드리며 친교를 나누는 '삼삼오오 찬양예배'가 올해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일인 30일 오후 3시부터 하나크리스천센터(담임 이용욱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8090 찬양팀 가을콘서트"를 겸해서 열린다.

▲문의: (323) 934-0058이용욱 목사

2017 YWAM 세미나 미니 DTS

2017 YWAM 세미나 미니 DTS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에 걸쳐 도미니카 선교베이스에서 개최된다. 지원지역은 55세 이상 한국어가 가능한 기독교인 중에서 최근 마약, 알코올, 담배 및 기타 중독이 없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이메일(seniordtsdr@gmail.com)로 하면 된다.

▲문의: (808)345-0807, 333-2029, (301)655-2209

헌츠빌 지역 말씀과 찬양잔치

헌츠빌 메디슨 지역교회협의회가 후원하는 헌츠빌 지역 말씀과 찬양잔치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11월 18일(금)부터 20일(주)까지 헌츠빌침례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미성대 명예총장)이며 홍순관 집사가 찬양한다.

▲문의: (256)880-2390, 425-3135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소망포럼이 베델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죽음 맞기 전 주변사람들과 화해하라"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소망포럼 성황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소망포럼이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엘바인의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 비전채플에서 300여명의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개최됐다.

12시30분까지 진행된 이 포럼에서 소망소사이어티는 4명의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참가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앞으로 소망소사이어티는 전 가주민들을 대상으로 죽음준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COALITION for COMPASSIONATE CARE of CALIFORNIA와 MOU를 맺어 사전의료 결정지침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상속전문 박영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의 주제 강연은 호그빙원의 통증완화 프로그램 담당부장 빈센트 뉴엔 박사부터 시작됐다. 뉴엔 박사는 통증완화 프

그램과 호스피스 케어가 중증환자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일 수 있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암 전문의 안상훈 박사는 안락사와 존엄사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절차를 거쳐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호그빙원의 엘렌김 사회복지사는 생명연장장치로 불리우는 영양공급관 삽입, 인공수액 공급, 영양호흡기 삽입, 심폐소생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은 최근 소망소사이어티가 한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여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죽음을 맞이 중에 항상 주변사람들과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기를 권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청중들이 참여해 강사들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lgco.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562)691-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5: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주일 4부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성경회: 오전 9: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sa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영어예배(월-토): 오후 11:00(청년) 영어예배(월-토): 오후 11:00(청년)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org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00(청년)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stm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통증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228 (전화 서비스 없음), Tel: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예배일) 목요예배: 오후 4:00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2: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www.stmpc.org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엘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1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성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라인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오전 8:0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org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6259 Fax: (714)646-6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church.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ancecg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갈수록 줄어드는 ‘다음세대’ 붙잡기 전쟁 예장통합 맞춤형 대책 마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이 가속화되고 있는 교회학교 학생 감소 추세에 맞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101회 정기총회에 보고 된 예장통합의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총 인원(2015년 12월 기준)은 40만7967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6484명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대는 아동부로 7844명이 줄었고, 다음으로 중·고등부 5564명, 영·유아·유치부 3076명 순이었다.

예장통합의 교회학교 학생 수는 최근 5년 간 꾸준히 감소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6일 펴낸 ‘2016 간편한 서울교육통계’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의 유·초·중·고교의 전체 학생 수는 지난 4월 1일 기준 107만702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7443명 줄어 들었다. 이 추세라면 서울의 학생

수는 향후 1~2년 사이에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장통합은 이와 같은 현실이 피할 수 없는 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신앙본질의 회복,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담당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동신교회에서 교단 소속 교회학교 담당 목회자 및 교사들을 초청해 교육목회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정영택 전 총회장은 “다음세대뿐 아니라 전체 교우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각 부서별로 2017년에 실천할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지침 등도 제시됐다.

아동부의 경우 ‘한 가지 주제로 설교와 성경공부, 후속활동을 진행해 어린이의 말씀이해 돕기’ 교회력에 따른 다양한 예배를 드려 절기에 대한 이해 돕기’ 연 2회 이상

전 세대 예배를 드려 신앙계승에 힘쓰기’ 어린이 축제를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기’ 등이 소개됐다. 이외에 어린이 인성교육과 청소년 자유학기제 활용법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예장통합은 또 최근 교단 산하 또는 소속 교인이 대표로 있는 기독교대학교의 교장들을 초청해 기독교대학교협회회를 구성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정태일(사랑방공동체학교) 목사는 “교회학교의 학생들이 곧 기독교대학교의 구성원이 된다”며 “협회는 학교 간 정보교류와 교단 및 교회와의 연계 강화, 교육당국과의 정책 협의 등을 담당하는 컨트론타워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로회신학대 박상진(기독교교육과) 교수는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생과 부모들이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교회학교는 살아남을 것”이라며 “기독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교육과정 및 교사의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와 생명 윤리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일치 않은 임신과 낙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낙태반대 운동을 해온 새생명사랑회 대표 김길수 목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낙태율과 자살률 등 우리나라에선 생명이나 무가법게 여겨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생명의 고귀함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도 더욱 절실하다. 선진국에서는 미혼모가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보호해주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 지원한다. 특히 미국과 노르웨이, 스웨덴은 아이의 생부가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면 공권력이 나서서 양육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이승구 교수는 “최근엔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져 미혼모가 자녀를 낳는 일 자체가 어렵게 됐다”며 “무엇보다 미혼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설이 많아져야 하고 교회 공동체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재 회장은 “의사의 본분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낙태는 기본적으로 엄마 배속에서 잘 자라는 아기를 죽이는 행위”라면서 “의사로서 낙태를 합법화시키자는 주장은 참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회) 목사, 박용규 라은성 함영주 김희자 총신대 교수가 ‘21세기의 참된 장로교인상과 교회교육’ 종교개혁 정신이 21세기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에 주는 의미’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목사는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진정한 제자도의 실체이자 참된 장로교인의 모습”이라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생명을 다하여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범위가 한반도까지 미치지 못한다.

TWR의 가정범위. 현 주파수를 유지할 경우, 태양의 흑점 현상 때문에 가정 범위가 한반도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다.

성 목사는 “주파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방송을 듣고 있는 북쪽의 청취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주파수 변경이 적시에 이뤄져 복음 전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기도를 요청했다.

동성에 문제 총체적 대응할 전문가집단 뿔뚱 성도덕법정책연구회 첫 모임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24일 열린 성도덕법정책연구회에서 “신학 과학 의학 등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정교한 동성에 반대논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외국 전문 자료를 갖춘 도서관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동성의 법적 윤리적 의학적 신

“여호와와의 증인 병역거부 무죄, 타종교와 형평 어긋나” 교계 우려 목소리 “종교 자유는 국토방위로 보장돼”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온데 대해 기독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18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와의 증인’ 신자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종종 나왔지만 항소심 무죄가 선고되기는 처음이다.

한국기독교교단선교연합회(이사장 박선희 목사) 총무 김대태 목사는

19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휴전 상황과 국가안보를 감안할 때 종교를 이유로 집종을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타 종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법원 원래도 유죄로 판단하고 있고,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7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철저한 국토방위로 보장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국토방위는 적극적인 국방 의무 참여와 이행에서 오는 것”이라며 병역의무 준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 군복무에 대한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남기평 총무는 “종교적 양심을 떠나 여러 방식으로 군 복무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재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입영 대상자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5723명이다. 이 가운데 여호와와의 증인 신자는 5686명(99.4%)에 달한다.

“위기의 한국교회, 툴립이 성경적 치료법 제공”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백석대서

‘위기의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이다. 백석대 백석정신아카데미는 24일 충남 천안시 백석대에서 제9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을 개최하고 ‘개혁주의생명신학과 한국교회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주강사로 초청된 미국 칼빈신학대학원 줄 메이던블릭 총장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영적 위기이며 항상 그래왔다”며 “성경적 치료법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에 대한 치료법은 고백과 회개, 즉 개인적·공동체적 고백과 회개로 시작한다”며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역대하 7장14절의 요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논란 중에도 채플 통해 이어지는 ‘스크랜턴 정신’ 이화여대 채플의 오해

지난달 27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채플, 예배가 시작되기 전 학생들은 단상에 자리한 최경희 총장을 향해 “해방이와, 총장사퇴”를 외쳤다. 최 총장이 자리를 빠져나가자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린다. 농성이 80일 넘게 이어져오는 동안 채플은 한번도 멈추지 않았다. 학생들은 몇 번의 채플에서 요구안을 적은 피켓을 들었음 뿐 어떤 돌발행동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도 있었지만 이대에 남아있는 기독교 정신을 존중한 것이다.

한국에 온 최초의 여성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1832-1909)은 1886년 봄 길가에 버려진 소녀를 발견하고 소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교육

한다. 이대는 예수님이 그러했듯 ‘낮은 자’를 위해 시작했다. 지금도 이대 교목실은 ‘창립기념일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대학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구현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매일 채플 예배가 열리고 학생들은 종합대학에서 가장 많은 8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역대 총장들도 될 수 있으면 채플을 빠지지 않았다 한다. 한 이대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이대의 정체성은 채플을 통해 전승된다”고 했다.

이번 정권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채플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 역시 단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방

“미혼모 극단적 선택 없게…법으로 출산도와야” ‘베이비박스’ 운영 주사랑공동체 법 제정 운동

낙태와 영아유기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미혼모를 출산 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8월 출생신고를 강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이 같은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는 ‘근경에 처한 임신부 지원 및 비밀출산 관련 법(가정) 제정’ 운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사랑공동체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모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주사랑공동체의 ‘연도별 베이비박스 현황’에 따르면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베이비박스의 아이들 수가 급증했다. 베이비박스의 보호건수는 박스가 처음 설치된 2010년 4건, 2011년 37건이었으나 개정 입

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에는 79건, 2013년에는 252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80건과 278건을 보였다.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사역 담당자인 조태승 목사는 “베이비박스 아이들의 엄마는 대부분 미혼모이고, 이 중 10대 미혼모가 50~60% 정도”라면서 “특히 10대는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기 두려워하고, 20대 이상의 미혼모는 사회적 낙인과 생계문제 등의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덧붙였다.

주사랑공동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생신고 제도뿐 아니라 미혼모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 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익명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출산 후 양육을 선택할 경우 친생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

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건물에서 성도덕법정책연구회 첫 전체모임을 갖고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의 실체를 알리는 연구 작업에 주력키로 했다.

심동섭 소망교도소장은 “최근 영국과 미국의 교회를 방문하고 이들이 어떻게 동성에 이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됐는지 집중 분석했다”면서 “승규 전 법무부장관,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 하재성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변호사 등 전문가 30여명은 24

메이던블릭 총장은 이른바 ‘툴립교리(TULIP·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로 불리는 개혁주의 5대 원리는 성경적 치료책을 제공하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임석순 한국중앙교회 목사도 “한국교회 쇠퇴기에는 목회의 목표와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며 “이제는 교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기록해지는 것이 시급하다. 경건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주의신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장종현 백석대 설립자는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신학, 목회자의 영적 지도력, 성경에 기초한 본질의 회복 등을 주문했다.

송사가 ‘최순실 딸’ 학점 특혜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된 성적표의 화질이 좋지 않아 채플 학점으로 표기된 ‘0’이 학점을 이수했을 때 적용되는 ‘1’로 비취졌던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진상조사위원회도 채플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목실에서의 자료와 성적표를 면밀히 조사해 0점 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의 사퇴로 이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몇몇 교수들은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마다 마련된 기도실에서 개인적으로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이대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앞으로 이대가 신뢰감을 주고, 학생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고 제안했다. 또 출산 기록을 숨기고 싶은 친생모의 출산기록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낙태 및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익명출산에 대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14년 ‘비밀출산법’을 제정해 임신여성을 지원하고 임신여성의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프랑스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익명출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가 미혼모와 그 아이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최초 또는 최선의 선택이 돼선 안 된다”며 “미혼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선제적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는 미혼모들을 상담하고 이들이 양육을 선택하면 분유비 등 양육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공한다.

물돼 연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서구 국가들이 문화제국주의를 앞세워 동성애를 강요하는 형국”이라면서 “한국교회는 성도덕법정책연구회 등과 함께 동성애가 국가를 망치고 인간성을 왜곡하는 잘못된 이념임을 알리고 문화제국주의적 발상에 적극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빛 못보는 태아 한 해 17만…생명존중 근본대책 세워야 교계 “정부 낙태 처벌 강화 오락가락”

정부가 불법 낙태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철회했다.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데다 의료계와 여성계가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교계에서는 정부의 졸속 행정에 우려를 표하며 불법낙태 근절과 생명 존중을 위해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행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는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낙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이 아니면 낙태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여성·사회단체와 의료계가 낙태죄 폐지까지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자 19일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무분별한 낙태에 반대해온 교계와 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성경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렘 1:5)”라

는 말씀처럼 태아도 생명체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선 한 해 17만여 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여성뿐 아니라 배속의 아이도 고귀한 생명체인데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는 낙태가 여성에게만 혹독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낙태 시술은 어쩔 수 없이 여성의 몸을 건드러기에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동반한다”며 “상당을 해보면 낙태 후 정신분열증, 자살충동, 우울증 등으로 오랜 시간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말했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강화를 넘어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출산 및 양육에서 남성의 법적 책임 강화,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원, 생명 윤리를 강조한 성교육 실시 등이 있어야만 낙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락 목사는 “책임 있는 성관

“4차 산업시대, 종교개혁 정신이 우리의 좌표” 예장합동 총회교육주제심포지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교육부(부장 김기성 목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2017년 총회교육주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노재경 총회교육진흥원장은 주제발제에서 “슈퍼 인공지능(AI)의 발달, 4차 산업시대의 도래 등 세기

적 전환기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교회체제를 예배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에서는 오정호(대전 세로남

‘태양 흑점’ 이 대북선교방송 방해꾼? TWR북방선교방송, ‘주파수 변경’ 위해 긴급기도 요청

“현재 북방선교방송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2016년 12월에 가정범위가 벗어난 한반도에서는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청중들이 방송을 듣는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단파 라디오를 통해 20년 넘게 북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TWR북방선교방송(대표 심훈경 목사)이 21일 ‘긴급 기도제목’을 배포했다.

대표인 성 목사는 “단파 방송은 태양 흑점의 영향으로 주기적인 주파수 변경이 필수적”이라며 “국제 주파수 관리국에 새로운 주파수(7500kHz)사용을 신청했는데,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기도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TWR북방선교방송의 가정범위. 현 주파수로는 가정범위가 중국과 러시아, 몽골에까지 이른다.

태양 흑점은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어두운 반점이다. 흑점의 개수나 크기는 대략 11년 주기로 증감하는데, 이때 태양 자기장이 지구 대기의 전리층을 교란시킨다. 이 때문에 전리층 반사를 이용해 전파를 보내는 단파 방송인 TWR북방선교방송은 주파수를 바꿔줘야 기존 가정권에 복음 전파를 이어갈 수 있다.

성 목사는 “현 주파수(9910kHz)로는 오는 11월까지 북한 전지역에 걸쳐 청취 감도가 ‘좋음’으로 나타난다(위 사진)”면서 “하지만 12월부터 1월까지의 이들 지역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아래 사진)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주파수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TWR북방선교방송 자료에 따르면 현 주파수의 가정범위는 오는 11월까지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 몽골에까지 이르지만 12월에는

“ISIS정체와 야망: 뉴욕에서 보자!” 내용소개

이슬람 선교전문가 전호진 박사의 “ISIS정체와 야망: 뉴욕에서 보자!”가 최근 출간됐다. 전 박사가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본지에 보내왔다. 책은 미주내 한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편집자주]

1. 우리사회의 좌파들이 이슬람을 더 지지합니다. 좌익과 이슬람의 불순한 동맹(unholy alliance of Left and Islam)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북한 핵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과 이란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본서는 ISIS(이라크와 시리아

이슬람국가) 등장의 원인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내분이 일차적 원인이고, 서구와 미국의 침공은 이차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시리아의 “더러운 전쟁”은 양파의 대리전인데, 서구와 러시아가 개입, 이미 화학무기를 사용하는데 자칫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3. 이슬람 테러는 이슬람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테러이론은 이슬람 교리, 코란, 역사의 산물입니다. 다만 온건 무슬림이 85%이상 되는데, 테러분자들은 과격한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4. 20세기는 공산주의라는 무신론적 이데올로기가 전세계 공산화를 시도하였는데, 21세기 세계는 종교적 집단주의이며 전체주의인 알카에다와 ISIS라는 종교테러집단이 세계를 이슬람으로 복종시키든지, 다 멸절시키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와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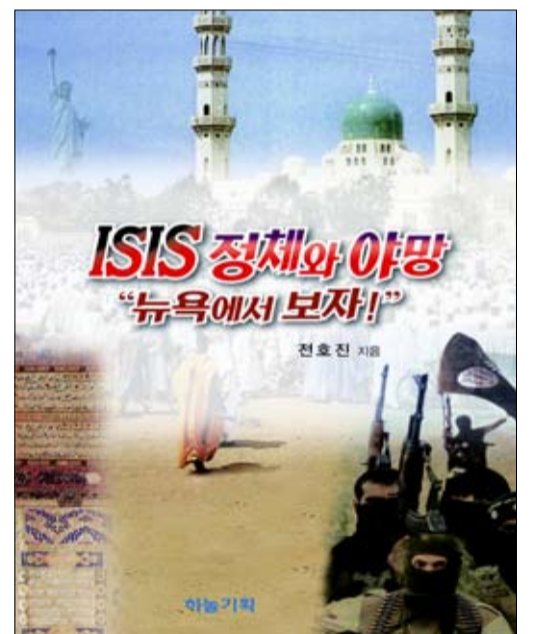
킬링필드 때, 좌파 지식인들이 범한 오류를 소개합니다.

“2차 대전 직전, 미국의 좌파 지식인들은 나치 히틀러와 일본의 군국주의를 좋게 보고, 미국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였다. 1975년 폴 포트의 공산 정권이 대량 학살하는 사실을 프랑스 신부 프란시스코 풍소는 죽음을 무릅쓰고 국제사회에 알렸다. 그러나 좌파 지식인 노암 촘스키 같은 자들은 그것을 극구 부인하였다. 우리도 지금 유사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아랍어를 알고 코란을 읽고, 무슬림 이민

은 거절할 수 없지만 집단주의, 비민주적 이데올로기인 이슬람을 막는 길은 종교를 국교가 아닌 개인의 것으로, 정교분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제퍼슨의 세속주의적 헌법초안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일찍 이슬람의 무서움을 간파한 최초의 미국인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전호진 hjjun01@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찬예배: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cb.org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민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주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8-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뉴욕손복음인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672-1150, CP: (718)938-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nt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30 유아성경공부: 오전 10:30 유아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창간50주년기념: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장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전 8:0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윈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윈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div style="text-align: center;">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div>						뱅크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804)584-5780, Fax: (8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n Piza, 23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유아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www.hwaichurch.org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새. 나. 신.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nrk@hot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선교 편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Dear, 기도와 사랑,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순간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엢1:2).

기도와 사랑,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 되도록, 기도-말씀-예배-섬김-전도-양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소식과 또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1.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거리의 교회" 예배 참여와, 급식 섬김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이후 요즘은, "쇼 & 빌라고샤(소금과빛) 교회" 주일 예배 후 배식을 돕습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지도자가 아니다. 오늘 오후의 지도자다"는 말이 있지요. 어릴 때부터 섬김을 통해 성장해가고, 훈련하며,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당/ 월요일: 허타르 역 다리 밑/ 화요일: 남부역/ 영육간의 예배와 급식 위해 기도해주세요.

2. "할렐루야 팀(토요일)"과 "다니엘 팀(수요일)"으로 나뉘, 노베르트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금요일 학교 다녀온 후에는 교회에 와서 어린이 제자 훈련(기숙사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부다페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언덕(치

타렐라)에 올라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니 애국심을 갖더군요. 새벽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나뉘 기도하고, 아이들이 조용히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주여...!

3. 집시가족은 서로 보호와 관습으로 근친상간이 많아 난독증, 자폐증, 장애자가 많은 편입니다. 한 가족은 8명의 자녀 중 5명이 학교를 가는데, 4명이 특수학교에 다녀, 저희가 학교방문을 했어요. 담임선생님들도 만나고, 학습시간을 지켜봐주고 격려해주시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사했습니다.

4. 새 가족(세레나, 졸탄, 마르코, 세

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98일간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많아 서로 나누며 진행합니다.

6. 저희 예배당 뒷마당에 창고를 짓고, 또 추수한 포도로 성찬식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당 벽을 새로 쌓았는데, 저희 부부는 재료를 사서 나르고, 산도르, 베를란, 피쉬티가 했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58:12).



비)이 요즘 열심히 성경공부, 토요일영어 학교, 주일학교에 나옵니다. 졸탄은 16살인데 초등학교(8년) 과정은 끝냈고, 직업학교를 다니러 합니다. 금연위해 기도해주세요. "살라쉬 동네"와 "회쉬 동네"가 아닌, 바로 저희 동네에서 왔다는 것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5.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두 번 제 "성경통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헝가리

시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예감하며 유비무환 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식 전할 때까지도 건강하시며, 각자 기도하는 것 주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서명희 드림.

교회공동체,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 재다짐

(1면에서 계속)

불연속

점차 기존의 상황 속에 작동하던 일들이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리더에게 변화를 기대하게 되고, 때론 긴장을 발생시킨다. 이 시기 리더는 이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실행되던 전통과 가치에 의문이 생기더라도, 불변하는 영원한 가치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리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시도와 수용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탈

변화는 리더뿐 아니라 공동체 일원 전체에게 충격을 가져온다. 심하면 리더 자신이 이탈하거나 낙오하게 되고, 적게는 감당치 못하는 공동체원 소수의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탈하는 공동체원을 보는 것은 공동체 자체와 리더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 된다. 이 시기는 가치관의 싸움이 일어날뿐더러, 권력을 놓고 싸우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리더는 이 격변기에 항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창조적 대응법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상과 수용이 요구된다. 어떻게 하면 이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를 공동체원에게 전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반복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과도기(내적변화)

가장 힘든 단계다. 이전 시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통제는 사라진 지 오래이다.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이 드물어진다. 이정표가 없는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임시적인 일이나 조직에 사람이 몰려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은 리더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다. 그렇다고 안정감만을 제공하는 근시안적인 대응법으로 공동체를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시기를 위해 버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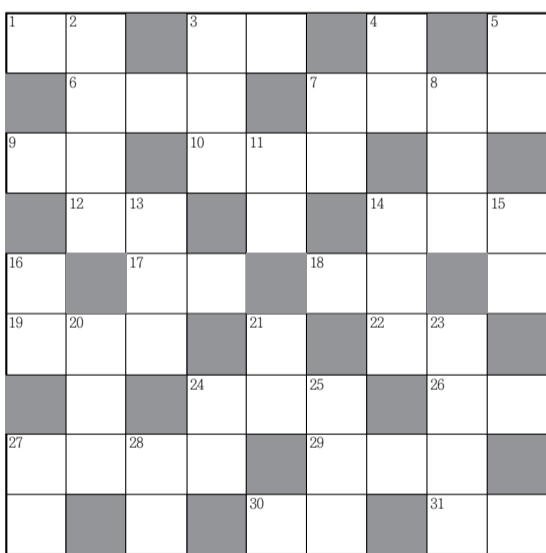
재형성

교회가 불연속성, 이탈, 과도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틀을 다시금 고안해 내려할 때 재형성의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 단계는 전통을 재창조하고 참신한 안정성을 발견하는 시기다. 새로운 구조와 역할 가운데서 교회는 새로운 틀을 입게 된다. 말씀이 중심이 돼 삶이 재정립되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역할과 규칙이 등장한다. 다시 소규모의 안정기를 시작할 시기가 된다.

이탈과 과도기를 잘 버티며, 재형성의 장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리더들에게 마련된 역할이다. 창조성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리더 자신의 유적 영적 기초체력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필요불가결한 변화의 각 단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변화를 예고하고 각자가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일 갑작스레 변화에 돌입한 교회라 한다면, 자신이 처한 단계가 어디인지 분석하고, 적어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측과 심리적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십자말 • Cross Word (145)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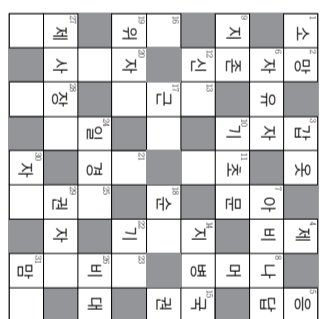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 그런즉 믿음, OO, 사랑, 이 세 가지는...(고전13:13).
- 적의 화살 등을 막기 위하여 입던 옷?(출28:32).
-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고전7:22).
- 이새의 둘째 아들, 다윗의 형(삼상16:8).
- 더 없이 존귀함(삼하22:14).
- 사물의 기분이 되는 문(대하23:5).
- 정승, 우리나라 식으로 장관(창12:15).
- 흙으로 초벌 구운 위에 오직물을 얹혀 구운 병(렘19:1).
- 서로 바삭 달라붙음(민4:19).
- 성격과 몸가짐이 어질고 순함(약3:17).
-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렘4:36).
- 명절(출5:1).
- 한나절에 발을 꿇(삼상14:14).
-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창35:20).
-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 중 으뜸 되는 사람(렘52:24).
- 국가의 주권을 가진 사람(민24:19).
- 둘째 아들(창41:52).
- 유대 남쪽에 있던 성으로서 헤브론의 서북쪽에 있다(수15:40).

<세로 푸는 열쇠>

- 종작없이 스스로 잘난 체 함(삼38:16).
- 생각할 사이도 없이 급히, 졸지에(민12:4).
- 홍부에게 박씨를 물려다준 새(민숙).
- 물음에 대답함(창35:3).
- 삼급의 관청(마26:3).
- 어떠한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행17:9).
- 회초리로 불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일(잠13:24).
- 신령이 몸에 접한 사람(신18:11).
- 성령강림절(행2:1).
- 전쟁 때 쓰는 무기(대상10:5).
- 나라의 권력(단2:44).
- 제사장직을 맡길 때 드리는 제사(레7:37).
- 거룩한 날(사58:13).
-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라(사9:6).
- 반(卵)의 일을 보는 사람(대상27:2).
- 일정한 거리를 달려 그 빠르기를 겨루는 사람(전9:11).
- 입금이 거처하는 집(예2:19).
- 사라의 옛 이름(창11:29).

십자말 정답



WE THE MESSENGERS

2016년 12월 27-30일

지금 신청하세요

18세 이상 / 대학생

1 차등록 마감 \$250 10월31일

2 차등록 마감 \$300 11월30일

3 차등록 마감 \$350 12월23일

숙박/식사 포함

GKYM 키즈 (5세-12세) \$150 (고정회비)

GKYM 유스

일반등록과 같은 회비입니다 (13세-17세)

문의

www.gkym.org

rochestergkym@gmail.com

주강사/크리스찬 아티스트

 조지 배워 OM 청림사	 임 은미 케냐 선교사	 마이클 오 국제 로잔운동 총재	 유 제이 케이팝 스타
 김 헤택 뉴욕 중신교회 담임목사	 찰스 지머만 갈보리 교회 담임목사 및 비블리칼 신학교 교수	 노 승환 토론토 밀양교회 담임목사	 AMP 크리스찬 래퍼
 정 민용 캐비닛 헬로섬 교회 담임목사	 박 형은 중앙 선교교회 담임목사	 백 승환 마이애미 캐비닛교회 담임목사	 장 종택 찬양 사역자
 노 희송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목사	 김 은열 뉴욕 중신교회 EM목사	 마크 최 뉴욕 IN2교회 담임목사	 브라이언 김 찬양 사역자

LOCATION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HYATT ORGANIZATION GKYM INTERNATIONAL GLOBAL KINGDOM YOUNG ADULT MISSION FESTIVAL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0)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4)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대학교사회학연구소)



새로운 이야기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는 한인교회 교육이 아닌 한인기독교교육(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에 의한(by)에 대한(toward) 비평적 사회학적 해석(Critical Sociological Interpretation)을 통해서, 우리가 한인기독교교육에 대해(criticism toward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그리고 한인기독교교육이 사회를 향해(criticism by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하지 않고 적극적인 일련의 관여(Involve)를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화(속화)에 있으며, 기독교 교육이 세속가치들과의 타협을 위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막강한 세속 가치들의 물결을 막아내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약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휩쓸려가면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게 되고, 어느샌가 그 물결의 몸을 맡기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기독교교육 내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 우리 사역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교육을 펼쳐야만 하는가?”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는 깨어지고 뒤틀리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것임을 정확하게 단호하게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수면위로 끌어 올리고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한 교회학교에, 평온한 기

이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에서 쫓겨왔지만, 이 시대에 특히 어디에서나 너무나 확고한 가치가 되어버린 “돈이 전부다”라는 생각들은 웬만해서는 대항하기 어렵고, 뒤집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나, 기독교학교나, 기독교단체나, 가정이나 사실 자본주의사회를 기반으로 존속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이에 어떠한 기독교적 대항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해야 할 내용은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원리들이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물질적 번영 자체가 죄악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제는 돈과 부의 추구를 인간 삶의 가치 위에 두는 것입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돈과 부의 가치를 하나님 위에 두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로 경각심 불러일으켜야 확고한 분별력 갖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 가르쳐야

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은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에 따른 각종 차별의 문제, 인간 존엄성과 권리의 문제, 후기제국주의의 문제, 빈곤의 문제 등등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의 사상적 기저를 이루는 각종 세속적 가치들 즉 물질 만능주의, 경쟁주의, 성공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기주의, 사대주의 등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 어떻게 한인기독교교육에 의한 그리고 한인기독교교육에 대한 비평적 사회학적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상관할 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먼저 “물질만능주의(Mormonism)”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편의상 구분하여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나, 위에서 언급한 사회문제들과 그 기저가 되는 세속 가치들은 사실 현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와 경제정의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물질만능주의라는 세속가치는 사실 기독교적 진리와 가치와는 정반대로 상충하는 것임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가 우리의 기독교교육 내에도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모두 예상할 수 있는 바, 분명 기독교 전체의 급속한 세

독교회학교, 잘 진행되는 선교단체에, 단란한 가정에 괜히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닌 지 걱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돌을 던지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형태들이 깨어지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표면적인 안정성 밑에 있는 물질만능주의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다음세대들의 진정 아름답고 의로운 삶과 인생을 깨뜨리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잠시의 흔들림이야말로 진정한 “살림”으로 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드시 물질만능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만능주의의 가치가 아니며, 오히려 기독교교육은 그것을 악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부지불식간에 마치 기독교교육의 가치와 물질만능주의의 가치가 한편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기독교교육 내 팽배한 물질만능주의의 가치에 대해 침묵하고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사실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어려운 것은 실질적인 교육의 내용, 즉 물질만능주의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대안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

는 것입니다.

경제적 물질적 부를 허락하신 장본인 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물질적 부 그 자체를 경배하고, 모든 인간 삶을 윤곽하게 하고자 허락하신 경제적 물질적 번영을 일부의 인간들이 다른 많은 인간들을 소외시키고 억누르는데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되며,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우상시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물질적 부와 번영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해 이웃을 해하고 인간들을 대상화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먼저 이를 대한 확고한 분별력을 갖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전 및 경제적 힘을 이윤과 인간사회 전반을 선하게 사용하고, 그것으로 혹은 그것을 위해 이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그것을 나누고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위한 기회를 쉼겨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귀한 가치임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궁극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위해 힘겨운 이민의 삶을 선택했을 많은 이들을 섬기는 한인기독교교육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준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삼하5:17-19)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엄청난 많은 군사들이 공격했을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단정코, 반

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아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오늘도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화 내 대적을 흠으셨다 하므로(삼하5:20)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도의 구체적인 특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에 “바알브라심”이라는 장소는 “바알을 경배하다, 바알을 흠으셨다”라는 뜻으로 다윗이 새롭게 만든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지명으로 칭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물을 흠음같이 내 대적을 흠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울왕은 크게 승리한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크게 승리한 후에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좀 잘되거나 뭔가 잘 풀리기 시작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수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삼하5:21)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성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항상 우상을 멀리 치우는 것입니다. 본문에 “치웠다”는 뜻은 “불태워버리다”는 뜻으로 우상을 미련없이 없애버린 것을 말합니다. 사제가 “미완료” 형으로써 지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철저히 없애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에게 패하면서 가져온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

습니다. 돈을 들여 만들고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버리고 갔으니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우상을 과감히 없애 버릴 때 우리는 더욱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한 우상을 나에게 두면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목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삼하5:22-25)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는 먼저 기도할 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합니다. 다윗은 이미 첫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이미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네 손에 붙일 테니 가서 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울

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뿔나무 수풀 맞은 편에서 블레셋을 급습하라는 기습작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와 명대로” 행했습니다(25절).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이 반드시 승리하고 더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금 하나님의 궤를 매어 오려하니(삼하6:1-5)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 승리한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고르고 고른 3만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유다로 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에 정성을 쏟느냐를 보면 신앙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렛 옷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시(삼하6:6-1)

본문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어도 방법이 잘못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사가 법계를 수레에 싣고 가고 있는데 소들이 뛰니까 법계가 떨어지려고 해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아무리 열심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옷사는 죽게 된 첫째 이유는, 법계를 반드시 제사장과 구별된 레위인의 어깨에 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사람들이 물론 실어 나를 때 쓰는 방법으로 법계를 수레에 싣고 날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계를 업신여기는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늘 경외함을 지녀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광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0-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광진구 효곡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신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홍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개포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제1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침례교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9-1(140-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인/터/뷰

무료병원서비스 '하모니 메디컬 트랜스포테이션' 이관행 사장

메디케어나 메디켈(납가주)을 소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무료로 병원까지 통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납가주에 처음으로 시작됐다.

메디컬 무료병원서비스 '하모니 메디컬 트랜스포테이션'(Harmony Medical Transportation, Inc 이하 HMT)의 이관행 사장은, 40년 역사를 가진 서비스인 통원서비스는 미국 50개주 전역에 실시하고 있고 납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HMT는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해서 올해 9월 시작을 했습니다. 통원서비스는 단지 집에서 병원까지 무료로 차량서비스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안경검안, MRI, X-레이, 투석은 물론 약국까지 모든 메디컬에 해당되는 곳은 전부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장은 HMT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메디케어나 메디켈을 가지고



통원서비스를 받는 한인들이 전문한 이유에 대해 이 사장은 홍보부족과 오해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무료인지 알고 사용했다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료로 통원서비스 해준다고 하면 의심을 하죠. 얼마처럼 해주면서 무료일까? 그리고 그동안 거주에서 수혜자들이 버스나 택시 혹은 자녀들 도움으로 병원이용을 해왔어요. 병원 측에서 통원서비스를 굳이 소개할 필요도 없었고요. 아마도 통원서비스가 한인사회에 정착이

했으 메디컬 수혜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뉴욕에서 '월드엠볼렛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통원서비스 사업을 해온 이관행 사장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뉴욕에서 무료로 노인 분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있던 시절 무료통원서비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아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 노인 분들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메디케어, 메디켈(메디케이드) 소지 환자, 병원까지 무료 서비스 2일전 예약...안경검안, MRI, X-레이, 투석, 약국 등 모두 해당

계신 분들이 본인에 소속된 보험카드에 적힌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차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영역사용이 불가능한 분들은 한국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병원진료시간, 병원주소와 집주소를 알려준다. △반드시 병원에 약일 이를 전에 연락한다.

이관행 사장은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어와 주정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는 메디켈) 수혜자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지만 납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수혜자들은 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HMT에 통원서비스에 대한 문의전화 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한인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중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남미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등 타인종들은 통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정작 한인들은 전혀 없거든요."

되려면 한인들 사회에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때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장은 한인들의 이용이 전무한 것에는 언어소통의 불편함 때문도 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언어가 불편해서 사용을 안하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연락할 때 한국인 서비스를 요청하면 저희 HMT에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게 되니까 언어적인 불편함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무료통원서비스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1주일에 100명이상 당뇨 등 성인병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으로 손이나 발을 잘라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서 장애인인 된 자들을 위해 예산이 늘어나게 되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는 무료통원서비스제도를 도입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일거든요. 그리고 세상직업을 보면 경쟁을 해야 하기도 하는데 저희 서비스는 경쟁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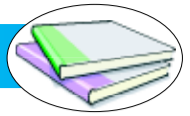
경쟁이 필요 없는 이유는 욕심을 내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통원서비스를 하는 거리는 20마일 내외정도면 적당하며 한인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굳이 욕심내서 멀리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연결돼있는 직업이어서 근무시간이 정확하고 휴일이 보장돼 있는 직업이다.

현재 풀러턴에서 HMT를 운영하는 이관행 사장은 내년 중에 LA에도 HMT를 확대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많은 분들이 HMT를 통해 편하게 병원을 이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323)522-3842, (718)415-9276

(박준호 기자)

새책 소개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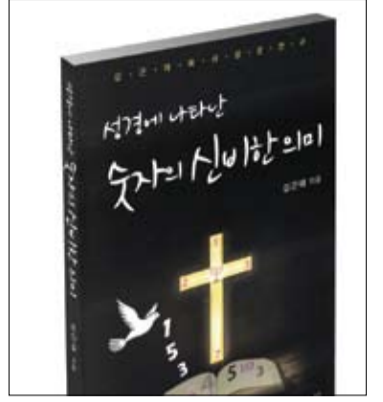
저자 김근태 목사

그린빌(SC) 새소망장로교회 담임 김근태 목사가 지은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가 최근 출간됐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치 않은 말이 하나도 없다”며 “특히 숫자는 숫자의 신비한 의미, 2부 성경에 나타난 난제의 시원한 해답, 3부 성경에 말하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 경 안에 있는 난해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기도 한다”고 밝히고, “

저자가 남다른 열성과 영성으로 숫자의 일반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 그리고 예언적 의미를 명쾌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쉽게 갈파하고 있다”고 추천했다.

책은 제1부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 2부 성경에 나타난 난제의 시원한 해답, 3부 성경에 말하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와 부록으로 1)한글과 영어 성경 암송 50, 100, 300요절 2)과워포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로 성경 난제 해결

이를 연구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주려는 목적에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책 출간 직후 소천한 고 정인수 목사(전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담임)는 이 책에 대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서적인 신비와 그 숫자에 내재된 의미를 풀어헤친 귀한 지혜”라고 추천했다.

오론목자교회 박천일 목사는 “

인트 설교가 수록돼 있다.

1부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 등 13주제, 2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요? 등 10개 교회 담임)는 이 책에 대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서적인 신비와 그 숫자에 내재된 의미를 풀어헤친 귀한 지혜”라고 추천했다.

저자 김근태 목사는 한국 해양 대학을 졸업하고 1973년 도미 뉴

욕주립대에서 엔지니어링 박사 과정을 수학했으며 SECO회사에서 18년간 근무했다. 그러다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 BSB성경대학(수학)과 중앙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AUBS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버팔로와 아틀란타를 거쳐 현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목회하고 있다.

구입문의: 718-762-1200 (유원정 기자)

새음반

“주의나라 되게 하소서”

찬양사역자 박숙희 사모 (태국선교사)

찬양사역자 박숙희 선교사의 음반 '주의나라 되게 하소서'가 출시됐다.

이번 음반은 타이틀곡 '주의나라 되게 하소서', '부르심', '나를 통하여', '십자가 그 길', '부름받아 나선 이룸',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등 한국작사 작곡가의 곡들과 태국 곡에 작사가 추인수 씨가 가사를 붙인 '홀로 하나

들이 교회에 잘 정착되고, 티라와트 전도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글로리아 뮤직법인(태국 대학생을 위한 문화학교)을 통하여 태국 영혼들에게 음악교육과 한류문화교육의 기회와 복음의 통로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글로리아 뮤직법인의 음악교육과정과 언어학습과정에 필요한 교사인력(장, 단기 사역



되고, 자녀들의 대학학비를 위한 후원자를 세워주소서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 이어지는 찬양사역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후원교회와 후원자들께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교감이 끊이지 않도록 등의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박숙희 박숙희 선교사 후원 계좌는 Bank of America(sooyoung Park) 325065648108이며 연락처는 66-95-270-7487(태국), 82-10-5702-0152(한국)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선교사 남편 도와 태국서 사역

신'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박숙희 태국선교사의 아내이기도 한 박숙희 선교사는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종과 같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숙희 박숙희 선교사는 현재 △태국선교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태국 카타콤 교회의 부흥과 람캄행 대학교에서 오는 태신자

자)와 재정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을 채워주소서 △카타콤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람캄행대학교에서 오는 새로운 태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되도록, △파송교회를 속히 세워주시고 부족한 선교비가 은혜가운데 잘 채워져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경이와 진혁이의 대학진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

2016

패밀리터치 & 한국 지구촌 교회, 목회 리더십 연구소 공동주관

강사

이동원 목사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
목회 리더십 연구소 대표

날짜: 2016년 12월 5일(월) - 6일(화) (1박2일)
 장소: DoubleTree by Hilton, Fort Lee, NJ 07024
 등록비: \$200 (미자립교회 및 개척교회 목회자 전액지원)
 대상: 현직 목회자 **부부** 선착순 30 커플, 타주 목회자 우선
 참가 문의: 패밀리 터치 201-242-4422

www.familytouchusa.org

목회자 부부들을 위한 사랑의 순례

